Industry p/11



현대차 영업익 하락 지속

metro®
메트로 2015년 7월 24일 금요일 제3265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23일>

코스피	2065.04	(+0.31)
코스닥	777.04	(+0.47)
금리(국고채 3년)	1.75	(−0.02)
환율(원·달러)	1165.10	(+12.30)



삼성 합병주가 '비상'

제일모직, 2분기 적자전환… 자회사 '바이오'도
삼성물산도 6만원선 붕괴 매수청구가 근접
제일모직 자사주 4400억원 매입 긴급 처방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두 회사의 외국인 매도행진이 거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일모직이 44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으로 대응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주가흐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국인들은 23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을 각각 151억8200만원, 152억1500만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에 대한 순매도를 각각 7거래일, 6거래일째 이어가고 있다.

합병주총이 열리기 이틀 전인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 7일 동안 외국인이 팔아치운 삼성물산 주식은 2181억6900만원에 이른다. 제일모직도 합병 통과 하루 전부터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져 현재까지 총 1101억1200만원 어치가 빠져나갔다.

외국인 매도세가 이처럼 진정되지 않는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무리한 합병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집단의 반대권고를 무시하고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도 외국인들의 반감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더욱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에 따른 외국인의 한국증시 이탈 움직임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날 외국인들은 5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환율 급등을 유발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날 하루 11.5원 상승했다.

외국인들의 거듭된 매도로 말미암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두 회사의 주가는 거의 매일 하락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2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물산은 전날보다 1.66%(1000원) 내린 5만9100원에 거래를 마치며 하루 만에 다시 6만원선에서 밀려났다. 제일모직은 전일보다 1.99%(3500원) 하락한 17만2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반등했던 양사 주가는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지며 하루 만에 나란히 하락세로 돌아선 것.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나란히 기대치를 하회하는 2분기 실적을 내놓아 향후 주가전망도 어둡게 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756억70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7.9%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6조2737억300만원 15.7% 줄었다.

특히 제일모직은 이날 장마감후 공시를 통해 2분기중 사상처음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제일모직은 매출액은 1조3114억8900만원으로 5.8% 증가했으나 당기순손실은 263억7400만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제일모직은 아울러 주가안정을 위해 44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적자전환에 따른 주가급락을 막고 오는 9월1일로 예정된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앞두고 본격적인 주주친화정책에 나선 모양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계속되면서 주가하락이 이어질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수도 있어 향후 외국인 동향과 주가흐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주당 5만7234원, 제일모직은 15만6493원이다. 양사를 합쳐 1조5000억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합병이 취소될 수도 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제일모직, −263억원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앞둔 제일모직(대표 윤주화·김봉영)의 2분기 실적이 적자 전환됐다.

제일모직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90억7200만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1% 감소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1조3114억8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으나 당기 순이익은 −263억7400만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지배기업소유지분 순이익도 −260억4100만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제일모직 관계자는 "메르스 영향 등으로 패션과 레저 부문의 실적이 좋지 않았다"며 "지난 5월 발생한 김포 물류창고 화재 손실과 함께 바이오사업(삼성바이오로직스) 연구설비 투자 금액이 일시적으로 반영되면서 적자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부문 별로는 패션 사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한 3968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32억원의 손실을 냈다.

건설 사업 매출은 건축(베트남) 및 플랜트 사업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23.7% 증가한 378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12.5% 증가한 207억원을 올렸다.

에버랜드 등 레저 사업 매출은 1201억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30억원 감소했다.

식음 사업(웰스토리)은 식자재 유통, 국내외 급식 등 전 부문이 견고하게 성장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163억원, 33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7.2%, 29.8% 증가했다.

아울러 제일모직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250만주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일모직은 오는 24일부터 10월23일까지 보통주식 250만주를 장내 매수할 예정이다. 이사회 결의일 전날인 지난 22일 종가(17만6000원) 기준으로 4400억원 규모다.

매입이 완료되면 제일모직의 자사주 지분율은 14.1%에서 15.95%로 1.85%포인트 상승한다. 합병 삼성물산 기준으로는 12.33%가 된다.

제일모직 관계자는 "삼성물산과의 합병 승인을 계기로 보다 신속히 주주친화정책을 펼쳐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이번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일모직이 자사주 매입 대금 4400억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는 의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1분기 제일모직의 현금성 자산은 1225억원뿐인데 44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어떻게 조달할지 의문이다"며 "제일모직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주가를 방어할 돈도 없다. 삼성물산과의 합병에 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한줄 News

▲ 여야는 23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부대의견으로 '법인세' 문구를 넣기로 하는 방식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담 지원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사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 17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와 오찬을 한다.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오찬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KDB산업은행의 실사 결과를 본 후 검사나 회계감리 등 감독 당국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은행은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메르스 확산, 가뭄 등 돌발성 악재와 수출부진 지속 등으로 전기 대비 0.3%에 그쳤다고 23일 발표했다.

▲ **현대자동차**가 23일 오전 긴급이사회를 열고 1주당 1000원을 중간배당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배당금 총액은 2686억6600만원이다.

▲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에 육박하는 4000만명의 **병원 진료·처방정보**가 불법 수집·유통된 것으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 수사결과 드러났다.

▲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65.1원으로, 전일 종가보다 11.5원 급등하면서 3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6월 국내인구이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이사로 이동한 사람은 65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8% 증가, 6월 기준으로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 올해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이 30만80가구로 작년 상반기보다 36.4% 늘어 상반기 실적으로는 2003년(32만1천가구) 이후 가장 많았다.

▲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현재 연 3~4%인 농업 및 수산 분야의 정책자금 금리를 최저 1.8~3.0%로 인하하기로 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더운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생활용품 298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용 수영복(8개), 공기주입 보트(2개), 물놀이 기구(1개), 우산(4개), 전격살충기(2개) 등 위해성이 드러난 17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23일 경북 구미와 경남 창원에서 각각 열린 방산업체 간담회에서 초대형 무기 개발사업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을 방산업체와 공유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전담관리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뼈대로 한 **'방위사업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개포8단지**에 대한 사업 시행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3일 정부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축소 검토 움직임에 대해 "단기 세수 확보에 치중해 미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국민안전처**는 다음 달 23일부터 소규모 식당과 PC방 등 5개 업종의 50㎡ 미만 다중이용업소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23일 밝혔다.

글로벌 '불륜 게이트' 공포

애슐리 매디슨 해커집단 '본보기' 정보공개
미국·캐나다 유부남 '신상·성적취향'까지
해커 "사이트 폐쇄 안하면 모두 공개" 협박

불륜 알선 사이트 애슐리 매디슨을 해킹한 해커집단 '임팩트 팀'이 지난 21일(미국시간) 본보기로 회원 2명의 불륜 정보를 공개했다. 첫 피해자는 미국 메사추세츠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사는 유부남이었다. 해커집단은 애슐리 매디슨이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정보마저 공개하겠다고 협박 중이다. 비싼 회비를 요구하는 사이트의 특성상 회원 중에 사회 지도층이 포함됐을 개연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단순한 가정 파탄을 넘어 전세계적인 '불륜 게이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보 공개 소식이 알려지면서 23일 전세계에 불륜 경보가 울리고 있다.

확률은 3700만분의 2에 불과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이름과 주소부터 성적 취향까지 정보는 적나라했다. 당장 미국 언론은 불륜남이 사는 메사추세츠주 브록톤을 찾아 현장보도에 나섰다. 미국의 CBS방송은 정보 공개 직후 심야 현장보도를 통해 "(불륜 정보가 공개된) 남자의 아이디는 Heavy73"이라며 "2014년 발렌타인데이 다음날 가입했다"고 소개했다. 또 "그는 포옹을 좋아한다"고 했다. 모두 유출된 회원정보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유출된 정보에는 아이디 뿐만 아니라 성과 이름, 우편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등 신상 정보는 물론이고 어떤 행위를 좋아하는지 등 성적 취향이 상세히 나와 있다. 미국 언론은 '(성적) 판타지 리스트'라고 표현했다.

CBS방송은 보안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회원들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이 해킹 가능하다"며 경보를 울렸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온 캐나다의 지역 언론은 "수도 오타와에서는 5명 중 1명이 회원에 가입했다. 많은 가정에서 저녁 식사 중 배우자로부터 '당신은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이 우려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경보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그치지 않는다. 영국 언론에서는 "120만 영국인 회원들이 (정보공개) 협박 위협에 직면해 있다. 해커가 다른 범죄자에게 회원 정보를 돈을 받고 넘길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일본의 교도통신은 "일본인 회원도 180만명 이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에도 수십만의 회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륜 게이트 공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한국이 동네북?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자 리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휴대폰을 믹서기에 갈거나 골프채와 벽돌로 내려치는 등 휴대폰 파괴쇼로 대응에 나섰다. 쇼에 동원된 휴대폰은 삼성전자 폴더폰이었다. 공교롭게도 이후 트럼프는 유세중에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으면서도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다며 한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미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한국이 동네북이 되고 있다. /유튜브 제공

도시바 회계부정에 뿔난 美 투자자들

집단소송 움직임 커져가

1조5000억원 규모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도시바에 미국 투자자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한 투자자가 도시바에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수십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내에서 향후 집단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집단소송은 개인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같은 피해자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도시바 입장에서는 막대한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3일 일본 NHK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로젠 법률사무소의 필립 김 변호사는 전날 NHK와의 인터뷰에서 "(회계부정을 조사한) 제3자위원회가 회계부정을 단정적으로 결론냈기 때문에 다음 초점은 투자자가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와 어느 정도의 인원이 소송에 참여할지"라며 "이미 수십명의 투자자가 소송에 응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어 다른 법률사무소에서도 투자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소송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도시바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의 소송 대리인이다. 도시바의 주식을 구입한 한 투자자는 지난달 4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이 투자자는 "도시바가 2012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인프라 관련 공사비용을 적게 추정하는 등 허위정보를 공개하여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미국 연방 증권법 위반"이라며 "만약 도시바의 정확한 실적을 파악하고 있었으면 주식을 구입하지 않았거나 높은 가격에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도시바는 미국 증시에 상장되지 않았지만 현물 주식을 담보로 한 미국 예탁증서(ADR)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제3자가 보고서에서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유리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피하고 싶어한다"며 도시바가 화해를 모색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변호사 속한 로젠 법률사무소는 6월 초부터 손해 배상 소송에 참가할 투자자를 모집해 왔다. 제3자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난 5월 7일 이전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대상이다. /송병형 기자

전출 직원이 자료삭제… 커지는 자살 의혹

삭제일자가 중요
14일 전이면 "윗선과 공모"
14일 후이면 "조직적 개입"

국가정보원 직원 임모 과장의 자살에서 가장 큰 의혹은 유서에서 스스로 "오해를 일으킬" 것이라고 평가한 자료의 무단 삭제 문제다. 이탈리아 해킹팀사에서 구매한 프로그램의 운용자가 다수라면 어찌 됐든 증언은 확보 가능하다. 하지만 삭제된 핵심 증거자료를 완전히 복구하지 못할 경우 증인들이 말을 맞추면 그만이다. 삭제된 자료의 복원이 중요한 이유다. 국정원이 재차 자료의 완전 복구를 자신하고 나섰지만 복원 자료의 신뢰성이 다시 문제다. 복원 주체인 국정원을 신뢰하기 힘든 정황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자료 삭제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병호 국정원장이 현장조사를 수용한 7월 14일 정보위 회의 이후, 그리고 임 과장이 숨지기 전날 17일까지 미스터리한 4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중요해졌다"며 "삭제시점이 국회 정보위 전인지 후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과장은 지난 4월 타부서로 전출됐고 4급이하라 삭제 권한이 없다. 이는 국정원 내규에 있는 것"이라며 "정보위 이전에 삭제했다고 가정하면 삭제권한이 없는 4급 직원이 어떻게 실행했는지, 윗선과의 공모 여부가 의문이다. 이 부분은 정보사찰 관계없이 조사처벌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정보위 이후 삭제했다면 국정원내 광범위하게 삭제에 대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인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국정원의 해명 태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일요일에 여당간사(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가 '감찰을 받았다'고 하더니 월요일에는 '전화로 확인한 정도'라고 말이 바뀌었다"며 "여당간사는 국정원의 대변인을 자임하고 있는 만큼 국정원이 감찰을 놓고 허둥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은 임 과장이 어떤 데이터를 삭제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임 과장이 개인 PC와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된 메인 PC의 자료를 다 삭제한 것이 아닌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해외 데이터 서버까지 지웠다면 우리는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모든 PC의 검증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에 해외 데이터 서버까지 지웠다면 로그 자체가 영구 삭제되어 복구는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민간인 해킹을 추적해온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비영리 연구팀 시티즌랩의 2014년 2월 보고서를 인용해 국정원의 해킹 데이터가 미국 회사 서버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삭제된 자료의 완전복구를 자신하는 국정원의 말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이날 정보위 여당간사인 이 의원 측 관계자는 "디가우저(자기장을 활용해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장치)로 지운 게 아니라 삭제버튼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정원 측 해명을 전했다.

/윤정원 기자 garden@metroseoul.co.kr



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오후 2시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중개업체인 나나테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병훈 현 국정원장은 당초 고발대상에 포함됐으나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됐다. 안철수 당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은 고발에 앞서 "의혹의 진실규명을 위해 30개 자료를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고 국정원에 요청했지만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고 무응답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추가 사안마다 2차, 3차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시민단체들도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마티즈 CCTV 이상무"

경찰이 CCTV 분석결과 영상 속 마티즈 차량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차량이 맞다고 결론내렸다.

23일 경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는 영상 속 마티즈 차량의 번호판, 범퍼가드, 차량 안테나가 자살현장에서 찍힌 사진과 다르다는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경찰 측 브리핑에 따르면 CCTV 영상을 초당 30프레임으로 나눠보면 차량 진행에 따라 동일한 번호판이 밝은색 또는 어두운 색으로 변화하는 것이 관찰된다.

또 동종차량으로 같은 시간대 재연 실험을 10여 차례 실시했을 때 실제로 녹색 번호판이 흰색으로 왜곡·변형된 것으로 나타났다.

CCTV의 저화소 카메라(34만 화소)가 문제였다. 고화질 카메라(150만 화소)로 같은 상황을 촬영했을 때는 번호판이 녹색으로 보였다는 설명이다. 범퍼가드와 차량안테나 의혹에 대해서는 '영상 보정작업을 통해 차량 부착물들의 유사점이 확인된다'는 결론이다.

/연미란 기자 actor@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되나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이르면 오는 24일 폐지된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태완이법)이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진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동안 공소시효가 완성됐는 이유로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던 살인 사건 등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가 종결될 때마다 공소시효 폐지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 유족들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가족의 한이라도 풀어야 한다며 공소시효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윤정원 기자

재벌총수 17명 청와대 회동

박근혜 정부서 첫 회동
기업인 사면론에 촉각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 총수들이 청와대에서 모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 17곳의 개소식이 마무리되자 센터지원을 맡은 대기업의 총수 17명을 초청해 환담할 예정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내일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지원기업 대표단을 초청해 간담회와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대구 및 경북센터), 김창근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대전 및 세종), 조현상 효성그룹 부사장(전북), 권오준 포스코 회장(포항),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광주), 구본무 LG그룹 회장(충북),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부산), 황창규 KT 회장(경기),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경남),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강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충남), 허창수 GS그룹 회장(전남),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제주),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제주),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울산), 손경식 CJ그룹 회장(서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인천) 등이다.

민 대변인은 초청 이유와 관련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나아갈 방향, 아쉬운 점, 지금까지 나온 성과 등을 공유하고 센터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는데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인천 센터를 마지막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17곳이 모두 설립을 마쳤다.

표면상의 이유는 이렇지만 물밑으로는 8·15특사에 재벌 총수 등 기업인 사면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인 특사를 요구하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알았다"고 답한 바 있다.

/송병형 기자 bhsong@

참이슬의 손혜원이 새정치를 네이밍한다

첫 작품은 '셀프디스'

새누리당의 홍보전문가 '조동원'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꺼내든 카드 '손혜원'의 첫 작품은 '셀프디스(자아비판) 캠페인'이었다. 손혜원 당 홍보위원장은 참이슬, 처음처럼, 힐스테이트, 트롬, 엔제리너스 등 다양한 히트상품을 네이밍한 홍보전문가다.

손 위원장은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 소속 모두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신에 대한 반성을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이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캠페인 시작을 알렸다.

셀프디스 시리즈의 첫 주자는 지난 2·8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두고 극한 대립했던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다.

문 대표는 '강한 카리스마를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글에서 "30년간 인권 변호사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태도에 익숙해지다 보니 당 대표가 된 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답답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쌓인 신중한 성격이 하루아침에 고쳐지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당이 개혁하듯 저도 분발할 것이다.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부드럽지만 강한 자의 횡포에는 더욱 강해지는 카리스마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호남, 호남 해서 죄송합니다"라며 "이제 대한민국의 그 어떤 지역도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다시 뛰겠다. 이제 나라, 나라 하겠다. 국민, 국민 하겠다"고 말했다.

/윤정원 기자

"돈 받은 적 없다" 홍준표, 혐의 전면 부인

윤 전 부사장 "악감정·유감 없지만 자금 전달 사실"
피고인들의 상반된 진술로 법정 공방 장기전 예상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61) 경남도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오전 열린 홍 지사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지사 측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고 그 장소(국회 의원회관)에서 (윤 전 부사장을) 만난 적 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이날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부사장은 "홍 지사에게 악감정이나 유감은 전혀 없지만 자금을 전달한 것은 모두 사실"이라며 홍 지사 측과 반대되는 진술을 내놨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해 향후 법정 공방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홍 지사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윤 전 부사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하루 빨리 열람하게 해 달라"며 "현재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날짜마저 정확하지 않고, (윤 전 부사장) 진술 내용까지 알 수 없어 막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발생 시점이 오래돼 성 전 회장의 측근조차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며 "법리상으로 6월 정도로 특정해도 피고인 방어권에 문제가 없으며, 현재 공소사실을 구체화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 이에 대해 윤 전 부사장과 얘기해 본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홍 지사 측 변호인은 "그럴 사이가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또 변호인은 현재 검찰이 공소사실이나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홍 지사 본인도 매우 답답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5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노리던 성 전 회장은 당대표 선출이 유력하던 홍 지사와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 홍 지사에게 자금을 건넸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지난 4월 9일 자원외교 비리 관련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 홍 지사를 비롯해 이완구(65) 전 국무총리 등 정치계 인사 8명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다.

이어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번지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 조사에 착수해 홍 지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오전 11시 열린다.

/이홍원 기자 hong@metroseoul.co.kr

'억대 사기 혐의' 최홍만, 검찰 송치

지인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씨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최 씨를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12월 홍콩에서 지인 문모(36)씨에게 여자친구와 자신의 시계를 산다며 71만 홍콩달러(1억여원)를 빌리고 갚지 않았다. 또 작년 10월엔 다른 지인 박모(45)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2500여만원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았다.

문씨와 박씨는 작년 2월과 10월에 각각 최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최씨는 올해 5월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최씨는 문씨에게 1800만원, 박씨에게 500만원을 갚은 상태였다. 박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연미란 기자 actor@

4400만명 환자정보 해외로 유통

약학정보원장 등 24명 적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에 육박하는 4400만명의 병원 진료·처방 정보가 불법 수집돼 해외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동의 없이 진료정보를 취급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 그동안 계속된 지적에도 고쳐지지 않던 약국·병원 내 허술한 환자 정보 관리가 결국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부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학정보원 원장 김모(51)씨와 병원 보험청구심사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G사 대표 김모(48)씨 등 24명(법인 포함)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만800여개 가맹 약국에 공급한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환자 주민번호·병명·투약내역 등을 포함한 43억3593만건의 진료정보를 빼냈다.

또 G사는 2008년 3월부터 작년 12월 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진료 내용을 기록하는 소프트웨어를 전국 7500여개 병원에 공급하고서 이를 활용해 7억2000만건의 진료·처방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양측은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미국계 다국적 통계회사 I사에 팔아넘겨 각각 16억원, 3억3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전후 50년간 전방 유류 보급 임무…'의정부 가금철교' 경기도 의정부의 젖줄인 중랑천 한가운데 흉물로 방치됐던 녹슨 폐철교인 가금철교가 인도교로 탈바꿈했다. 시는 지난해 말 폐철교를 개·보수해 최근 금오동과 의정부동을 연결하는 길이 122m, 폭 3~5m의 인도교로 만들고 23일 개통식을 했다. /연합뉴스

인분교수, 미지급 급여 등 400만원 공탁

피해자 "위자료가 130만원? 말도 안되는 금액"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경기도 한 대학교 A(52) 교수가 법원에 미지급 급여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한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피해자 D(29)씨는 "도대체 어떤 계산법으로 400만원이 나온 건지 의문"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D씨는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A씨가 미지급 급여 249만1620원과 지연손해금 16만원,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D씨에게 현실 제공하려고 했으나 수령을 거부해 공탁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

이 서류를 받은 D씨는 "미지급 급여가 몇 개월 치로 계산된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A씨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만 계산하면 600만원은 된다"고 말했다.

이어 D씨는 "구체적인 위자료 명목의 금액은 명시돼 있지도 않다. 전체 금액 400만원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빼면 약 130만원이라는 소린데 그게 위자료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A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D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D씨를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인분을 모아 10여차례 먹게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A씨의 제자 B(2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제자 C(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홍원 기자

"RCS '구입·사용' 통비법 위반 소지 커"

<해킹프로그램>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 통보 없이 구입 후 허가없이 사용
해킹프로그램, 감청설비 해당여부가 관건

국가정보원(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RCS)을 비밀리에 구입·사용한 것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감청설비 인가기관과 절차를 어겨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에 반할 소지가 크다는 견해를 내놨다.

23일 메트로신문의 전문가 진단에 참여한 법률 전문가 5명 중 4명은 ▲시대흐름을 반영해 해킹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설비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점 ▲그에 따른 통보 절차를 어긴 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이 아닌 점 등을 근거로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통보 없이 구입하고 허가 없이 사용한 것은 통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보기관이라는 속성상 통비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국정원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

법 위반의 쟁점은 국정원이 도입한 해킹프로그램이 통비법상 감청설비에 해당하느냐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감청설비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정원 등 정보기관은 동법 제10조 2항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정원은 해킹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물리적 장치를 의미하는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메트로신문의 전문가 진단에 참여한 법률 전문가. (왼쪽부터) ▲박찬종(법무법인 이도) ▲김영진(법무법인 인화) ▲박주민(법무법인 이공) ▲노영희(법무법인 천일) ▲이재교(세종대학교 자유전공학부)변호사. /뉴시스·각 법무법인

박찬종(법무법인 이도) 변호사는 "해킹프로그램이 실체가 없는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디지털 시대 흐름에 맞춰 설비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프로그램 도입 시 국회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통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진(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도 "해킹프로그램 자체는 물리적 설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감청기능을 쓰기위해 하드웨어와 결합돼야 하는 특성상 기계 설비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법률 위반에 동의했다.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감청 정황을 전제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절차상 문제를 들어 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주민(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떡볶이 맛집' 등 내국인의 접근이 쉬운 검색어를 이용해 감염시키려고 하거나 (휴대전화) 갤럭시S3를 이탈리아에 보내 해킹해 달라고 하는 정황을 보면 내국인 감청을 안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으므로 통비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노영희(법무법인 천일·대한변호사협회 전 수석대변인) 변호사는 "정보기관의 경우 선 감청 후 통보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쓰인다.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킹프로그램의 실제 용도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법위반을 논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이재교(세종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변호사는 "해킹프로그램은 해킹을 막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도 있다"면서 "도입 과정보다 어떻게 사용했느냐의 문제가 더 크다. 위법적 감청에 사용했다면 그때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환자 개인정보 유출' 적발시 시스템 인증 3년 취소

사실상 시장 퇴출 의미
"징계 끝나도 재기 힘들 것"

약국, 병·의원의 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 동안 해당 시스템의 인증이 취소된다.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을 청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인증 절차가 있었으나 병원이나 약국에서 환자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에는 인증 절차가 없었다. 검찰 수사에서 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4400만명의 병원 진료·처방정보가 불법으로 수집·유통된 사실이 적발된 것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의료정보시스템에 인증·등록 제도를 도입해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 동안 인증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불법의 정도가 심할 경우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3년간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업체는 징계가 끝나도 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해 다국적 의료통계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의료보험청구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는 전산업체 3곳과 이 업체들로부터 불법 환자 정보를 사들인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1곳 등 관련자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의료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직접 환자 개인보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었지만 감시 역할을 맡아야 할 공공기관들의 통제에서는 사실상 벗어나 있었다.

복지부는 기소된 3개 전산업체와 의료통계업체 1곳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따로 보관하고 있는지 행정자치부, 관계 기관 등과 함께 특별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정보시스템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지만, 기존 고객은 다른 업체의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약 2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병·의원, 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외주업체가 환자 개인정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

檢 '뇌물수수 의혹' 조현오 소환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오(사진) 전 경찰청장이 내달 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최근 조 전 청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크게 2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첫 번째 혐의는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씨에게서 "경찰관 인사 청탁 등과는 무관하고 조 전 청장에게 선의로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청장에게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 전 청장과 정씨를 대질 심문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정씨가 건넸다고 주장하는 돈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또 검찰은 경찰관 승진 청탁과 함께 친구에게서 돈을 전달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



재)로 구속 기소한 부산 모 농협 조합장 A(60)씨와 조 전 청장의 금전거래 의혹도 수사할 방침이다. 조 전 청장과 중학교 동기인 A씨는 또 다른 중학교 동기에게서 "알고 지내는 경찰관의 승진을 조 전 청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말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이같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또 승진 청탁과 함께 경찰관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한 전 건설업자 임모(67)씨와 조 전 청장 간의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조 전 청장은 "나는 인사 청탁으로 돈을 받는 파렴치범이 아니다. 검찰에 출석해 결백을 증명 하겠다"고 말했다. /이홍원 기자 hong@

순대 제조공장 위생 '엉망'… 40%가 기준 위반

순대의 위생상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순대는 대부분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져 시중에 유통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처음으로 이 순대 제조업체들을 조사했다. 결과는 10곳 가운데 4곳이 위생 상태가 엉망이거나 유통기한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대 제조업체 99곳을 기획 감시했다. 그 결과 39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민들이 즐겨 먹는 순대 제품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표시기준 위반, 보관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 위반 등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13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8개소) ▲원료수불부 미작성(4개소) ▲ 보관기준 위반(2개소)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1개소) 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밝혔다. 아울러 해당 업체들이 만든 순대가 전국 분식집과 식당 등으로 유통됐다며,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치선 기자 chisunti@

'농약 사이다' 피의자 할머니, 이르면 내주 송치

경상북도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르면 내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23일 같은 마을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피의자 박모(82·여)씨를 기소 의견으로 오는 27일까지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마신 사이다에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피해자 가운데 신모(65·여)씨만 의식을 되찾았을 뿐 정모(86·여)씨 등 2명은 숨졌고 한모(77·여)씨 등 3명이 위중한 상태다.

/이홍원 기자

농림부, 밥쌀용 쌀 3만톤 기습 수입 논란

올해부터 의무적 수입 규정 사라졌지만 수입 불가피해져
농민 "쌀값 하락세 지속… 수입강행, 식량주권 포기행위"



지난 5월 전국농민회총연맹 주최로 열린 '밥쌀용 쌀 수입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밥쌀용 쌀 3만톤을 기습 수입키로 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입할 밥쌀용 쌀 3만톤에 대한 구매입찰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가 낸 입찰 공고에 따르면 이번에 입찰하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수입쌀은 밥쌀용 쌀 3만톤 가공용 쌀 1만1000톤 등 총 4만1000톤이다.

앞서 지난 5월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밥쌀용 쌀 1만톤 구매 입찰을 했지만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와 가격 조건이 맞지 않아 유찰됐다. 당시 유찰 물량인 중립종 1만톤은 이번 입찰 물량에 포함됐다.

입찰 결과는 31일 이후 견본품 검사, 응찰가격 개찰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초에 나온다.

수입 쌀은 입찰에서 도입까지 보통 4~5개월이 걸린다. 이번 입찰에서 수입업체가 선정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입찰 물량이 들어온다.

수입쌀은 막걸리 같은 가공식품에 쓰이는 가공용 쌀과 밥상에 오르는 밥쌀용 쌀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일정량의 밥쌀용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왔다.

올해부터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부과해 시장을 개방하면서 밥쌀용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규정이 없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수입국이 관세율에 이의를 제기해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513%를 방어하려면 밥쌀용 쌀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농민들은 가뜩이나 쌀 수급불균형으로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쌀 관세율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인데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하는 것은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밥쌀용 쌀 3만톤 수입은 입찰공고를 하루 앞두고 기습적으로 진행돼 논란을 키우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농림부는 이번 밥쌀용 쌀 수입 결정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전국농민회총연맹·쌀전업농·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반발에 대한 불식이 이뤄진 것처럼 보고했다.

그러나 황 의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와 사실을 확인한 결과 농림부의 보고는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농 관계자는 "농림부가 대화를 시도했던 것은 사실이나 원만한 소통이 이뤄졌던 것이 아니며 8월13일에 회의를 열어 저율관세할당(TRQ)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며 회의 날짜까지 잡아놓고 기습 발표를 하는 것에 오히려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황 의원은 "국회에 공고 하루 전 기습보고를 한 것도 모자라 허위의 내용을 보고하면서까지 쌀 수입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쌀 수입은 장관이 직을 걸고 막아내야 할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익 1조3754억

전년 동기比 27% 증가
6분기 연속 1조원 돌파

SK하이닉스가 6분기 연속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에 1조375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는 작년 같은 분기(1조839억원)보다 26.9% 증가한 수치로 시장 전망치에 대체로 부합한 실적이다.

매출액은 4조6390억원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18.2%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30%, 법인세 비용 등을 반영한 순이익은 1조1080억원이다.

D램과 낸드플래시 출하량은 전분기보다 각각 4%, 8% 증가했고 평균판매가격(ASP)은 8%, 6% 하락했다. 하반기에는 모바일 D램 비중은 40%까지 급증하고 PC D램 비중은 20%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주력 제품인 D램 생산에 있어 수요가 증가하는 DDR4와 LPDDR4 D램 생산은 당초 계획보다 늘리고 DDR3 생산은 줄일 계획이다.

향후 고용량·고성능 DDR4 기반의 서버와 모바일 중심의 주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낸드플래시는 주요 스마트폰 업체의 모바일 신제품 출시가 본격화되고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2분기에 출하를 시작한 10나노급 TLC(트리플레벨셀) 제품의 생산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3분기내로 3D 2세대(36단)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소규모 생산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 TLC 기반의 3세대(48단) 제품도 연내에 개발을 마쳐 SSD를 포함, 솔루션 제품 전반으로 적용을 확대하는 등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3D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는 "PC 시장과 컨슈머 제품 시장은 크게 성장이 없겠지만 서버용은 빅데이터 처리를 위해 미드엔드 서버급이 늘어나며 수요가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모바일 D램의 경우 하반기 신제품 출시 등으로 예년보다 상반기 대비 하반기 수요 성장이 더 강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 진출과 관련해서는 "향후 중국이 진출할 것이라는 시각에는 동의하지만 얼마나 빨리 어떤 기술을 가지고 들어올지는 미지수"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메모리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질적 성장을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하반기 금융사 건전성 유지 최선 다할 것"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수익성 하락·가계부채 증가 등 잠재위험 커져
체감 위한 금융개혁과제 차질없이 시행할 것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3일 "하반기 금융환경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건정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금융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취임 후 8개월간의 업무성과를 회고하고 하반기 금융감독과 검사 운용방향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진 원장은 "현재 그리스 사태, 중국 증시 급락, 미국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 잠재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들이 개혁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미 발표한 금융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관련해 네 가지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운용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2017년 이후 폐지할 예정인 만큼 종합검사를 계획대로 실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은행 3곳, 증권사 2곳, 보험사 2곳의 종합검사가 계획돼 있다.

검사는 처벌보다는 리스크 대응 및 법규준수 실태점검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문검사는 원칙적으로 컨설팅 방식의 '건전성 검사'로 실시하되, 중대한 위규행위가 드러나 즉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준법성 검사'를 실시해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검사실효성 제고를 위해 ELS·펀드·방카슈랑스 등 여러 권역에서 판매 중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한 공동검사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검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발표한 검사행태 쇄신 실천 방안인 확인서·문답서의 원칙적 폐지, 검사원 복무수칙의 철저한 숙지 등을 검사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할 것도 약속했다.

아울러 현재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 '민생침해 5大 금융악 척결' 노력도 중단 없이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진 원장은 "지난 8개월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가운데, 취임 시 밝힌 신뢰, 역동성, 자율과 창의 등 3대 금융감독 기조를 실천해 나가기 위한 토대를 닦는 기간이었다"며 "다수의 금융회사 관계자나 국민들께서 아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더욱 분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www.jejuhotelnh.com

제주도에 특급호텔을 소유하시고
매월 따박따박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챙기세요!
제주도 최고의 호텔운영률을 자랑하는 노형동!

GOLDEN TULIP
JEJU NOHYEONG-HOTEL

입지조건 1등
호텔 브랜드 1등
투자 안전성 1등

1등호텔에 투자하십시오

제주 공시지가 1위 제주의 명동, 노형동

높은 지가상승률(도시개발사업 진행)
제주에서 땅 값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매년 가파른 지가상승률 기록

드림타워 프리미엄
제주 최고층 복합리조트인 드림타워(38층) 개발(예정)의 프리미엄 효과

확실한 관광 수요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호텔 밀집지역으로 풍부한 관광수요 확보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2015년 12월 31일 특별법 종료로 인한 프리미엄 효과

골든튤립 제주노형호텔

대한민국 호텔투자 최초로
신탁사의 자금관리를 통해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호텔수익금 안심지급제도 실시

미국 호텔과 차원이 다른
유럽 최고의 호텔 브랜드

유럽 최고의 호텔그룹 루브르와
중국 최대의 호텔기업 진장이 만나 완성되는
골든튤립, 제주 호텔의 새로운 기준



- 루브르 호텔그룹의 1등급 브랜드 골든튤립 프리미엄
- 1등급 호텔의 아이콘 골든튤립 정식로고 사용
- 특급호텔만의 객실규모와 고품격 스위트룸 설계
- 골든튤립의 품격을 완성하는 일급 부대시설 조성

GOLDEN TULIP
JEJU NOHYEONG-HOTEL

골든튤립 제주노형호텔만의 PREMIUM6

- 실 투자금 대비 16% 수익률 지급 (대출이자 4% 포함)
- 확정수익률 10년간 지급 (신탁사 수익금 관리)
- 환매보장제 실시
- 중도금 무이자 (50%)
- 연간 10일 호텔 무료숙박권 제공 / 제주도항 왕복항공권 2매 제공
- 특급호텔(1박) 골프라운딩권(1팀) 무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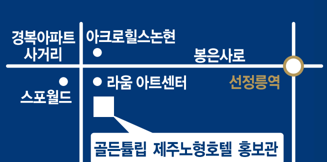


분양문의 1644-8440

청약계좌 ▶ 청약금 100만원	
우리은행	1005-002-542904
예 금 주	(주)생보부동산신탁

※미계약시 청약금은 전액환불됨

| 객실등기분양 **총 352실**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88번지 진영빌딩 2층

시 행
엔에이치산업개발 주식회사
NO HYOUNG INDUSTRY DEVELOPMENT CO.,LTD

책임준공
경림종합건설(주)

호텔운영
CITY ISLAND
(주)시티아일랜드

※상기 계약자 혜택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와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제작물에 명시된 개발계획 등은 해당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호텔 운영사가 수익금(임대료) 지급을 보장하며, 생보부동산신탁은 자금관리업무(관리계좌 입금금액)에 한하며 투자 수익금 미지급 관련 투자 위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홈쇼핑株, 2분기 실적부진 전망에 '먹구름'

백수오 파동·메르스 영향
증권가, 목표가 하향 조정



CJ오쇼핑 '시크릿찬스' 방송 장면.

주요 홈쇼핑업체들의 2분기 실적 감소가 예상되면서 홈쇼핑주 전망에도 먹구름이 짙어졌다.

최근 홈쇼핑업종은 2분기 신뢰도 하락과 소비심리 부진, 일시적 환불 비용 발생 등 3중고를 겪었다.

전문가들은 "백수오 파동과 메르스 영향으로 홈쇼핑 종목의 2분기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할 것"이라며 "2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주가 전망이 밝지 않다"고 진단했다.

홈쇼핑주의 약세는 올해 내내 지속되고 있다. 특히 CJ오쇼핑의 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반토막이 났다. 지난해 7월 말 40만원이던 주가는 이달 23일 20만7300원까지 떨어졌다.

증권가에서도 홈쇼핑 종목에 대해 잇따라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홍성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CJ오쇼핑의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하락한 517억원으로 전망된다"며 "연결 자회사인 CJ헬로비전의 실적 안정성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홍 연구원은 "영업이익 감소는 백수오 파동과 메르스 영향으로 매출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홈쇼핑주 내에서 CJ오쇼핑의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25만9000원에서 24만9000원으로 내렸다.

김지효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CJ오쇼핑은 다른 홈쇼핑 업체들처럼 지난달부터 소비심리 악화 영향을 받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60억원(추정치)의 환불 비용이 발생해 이익이 줄었다"면서 "마케팅 확대에 따라 발생한 비용도 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GS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의 2분기 실적도 부진할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GS홈쇼핑의 2분기 총 취급액은 별도기준 전년대비 3% 늘어난 8810억원, 영업이익은 39.4% 감소한 230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마케팅 비용 증가와 백수오 제품 일부에 대한 환불 비용이 반영되면서 이익이 감소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분기 실적 부진을 감안해 연간 순이익 추정치를 7% 내린다"면서 GS홈쇼핑의 목표주가를 기존 32만원에서 26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안지영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백수오 악재와 메르스 등에 따른 소비침체로 실적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26만원에서 24만원으로 낮췄다.

안 연구원은 "백수오 이슈가 GS홈쇼핑의 2분기 실적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2분기 환불 요청 급증은 일반상품 주문을 방해, TV 주문 요청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백수오 환불 비용은 업계 평균 30억~40억원 수준으로 GS홈쇼핑도 2분기에 전액 반영이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박종대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현대홈쇼핑의 영업이익은 송출수수료 증가와 프로모션 확대, 일회성 백수오 환불 비용 발생 등의 이유로 전년 동기 대비 39%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민지 기자 minji@metroseoul.co.kr

증권 마감시황



코스피, 환율 급등에 강보합

외국인 닷새째 '팔자'

코스피가 환율에 발목이 잡히면서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23일 코스피지수는 전일대비 0.34포인트(0.02%) 오른 2065.07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개인은 1735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기관도 54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반면 외국인은 1892억원을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에 따른 해외자금 이탈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외국인은 이날 5일째 순매도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다.

운송창고(3.13%)와 운수장비(1.96%), 전기가스(1.81%), 유통(1.51%) 등은 상승했다. 반면 비금속광물(-4.18%), 건설(-4.02%), 철강금속(-2.09%) 등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2.09%)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에 힘입어 2% 넘게 올랐다. 현대차(5.34%)는 이날 발표된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환율 상승과 배당 성향을 확대하겠다는 발표에 5% 넘게 상승했다. 현대모비스(1.52%), 기아차(1.32%)도 동반 상승세로 마감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전일대비 1.52% 하락했으며 제일모직(-1.99%)과 NAVER(-2.05%)는 1~2% 하락했다.

코스닥은 하루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0.42포인트(0.05%) 오른 776.99로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3억원, 8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171억원을 순매수했다.

시총 상위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1.47%), 다음카카오(-1.44%)가 하락했다. 동서(1.72%), 메디톡스(0.12%) 등은 올랐다.

한편 원 달러 환율은 외국인 매도와 미국금리 상승전망에 따라 급등해 1160원선을 돌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1.5원 오른 1165.1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 2013년 6월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김민지 기자

KRX, 전력거래소와 '온실가스 감축' 맞손

배출권거래제 MOU


(왼쪽부터)강기원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 유상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23일 나주 전력거래소에서 배출권거래제 발전과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는 전력거래소와 23일 나주 전력거래소에서 배출권거래제 발전과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권 중 잔여분에 대해 거래를 허용한 제도다. 지난 1월부터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시장을 개설해 운영해오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전력거래소는 전력산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배출 총량 중 4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강기원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은 "전력분야와 금융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양사간 협업을 통해 전력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로써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37% 감축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저탄소 전력산업 육성을 위해 양사가 상호협력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온실가스 감축국가로서 그 위상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칩스앤미디어, 공모가 1만500원 확정

수요예측 경쟁률 123대 1

국내 반도체 IP 전문기업 칩스앤미디어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한 공모가가 밴드 상단에서 결정됐다.

칩스앤미디어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일과 21일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 결과 최종 공모가를 1만500원으로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공모희망가 밴드(9300원~1만500원)의 상단으로 총 공모금액은 68억3000만원이다.

이번 칩스앤미디어의 수요예측에는 총 167건이 접수돼 경쟁률은 123.2대 1을 기록했다. 이중 103건이 1만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했으며, 상단인 1만500원 이상의 가격을 신청한 건수도 88건을 기록했다. 가격과 상관없이 배정받겠다고 의사를 밝힌 건수는 26건이다.

칩스앤미디어 관계자는 "이번 수요예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기관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비디오 코덱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행 기술을 연구해 시장을 선도하는 멀티미디어 IP 회사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3년에 설립된 칩스앤미디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IP(반도체 설계자산) 중 동영상의 녹화·재생 기능을 담당하는 비디오 IP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칩스앤미디어는 오는 27, 28일 양일간 청약을 거쳐 다음달 5일 상장할 예정이다.

/김보배 기자

수렁에 빠진 한국 경제… 2분기 0.3% 성장

수출부진·메르스 여파 5분기 연속 0%대 그쳐

농립어업 생산 증가율 가뭄에 11.1% 나 급감

올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3% 성장하는데 그쳤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에 따르면 2분기 국내총생산(GDP)는 전분기보다 0.3% 증가했다.

이는 한은의 예상치보다 0.1% 낮은 것으로 앞서 한은은 지난 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 조정하며 2분기 성장률 예상치를 0.4%로 내놨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서도 2.2% 성장하는데 머물렀다. 여기에는 지속된 소비와 수출 부진 등의 영향이 컸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도 복병으로 작용했다.

2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5개 분기째 연속 0%대를 기록했다. 다만 작년 4분기를 제외하면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1분기(0.1%) 이후 약 6년 만에 가장 낮다. 같은기간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분기보다 1.3% 증가했다.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보면 민간소비의 경우 준내구재와 서비스가 줄며 전분기 대비 0.3%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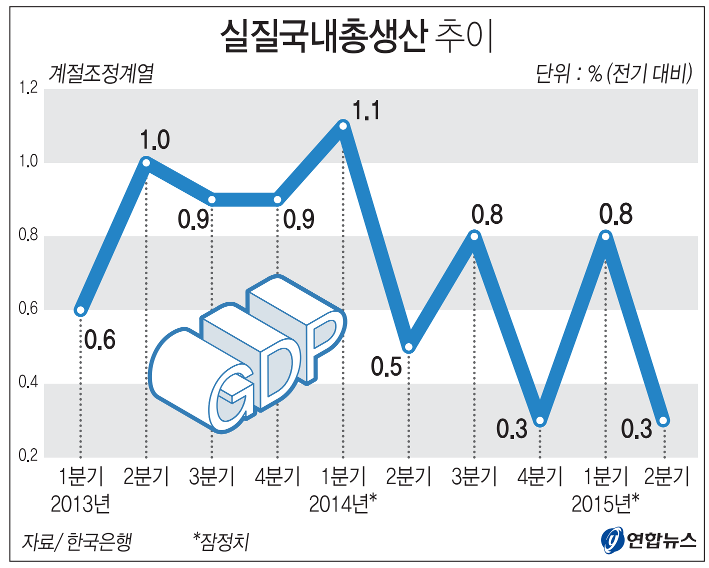
설비투자는 기계류 감소에도 운송장비가 늘어 0.4% 증가했으며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1.7% 올랐다.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 재화수출을 중심으로 0.1% 늘었고 수입은 원유와 자동차, 거주자 국외소비 등의 영향으로 0.5%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가뭄의 영향을 받은 농림어업 생산 증가율이 지난 1분기보다 11.1%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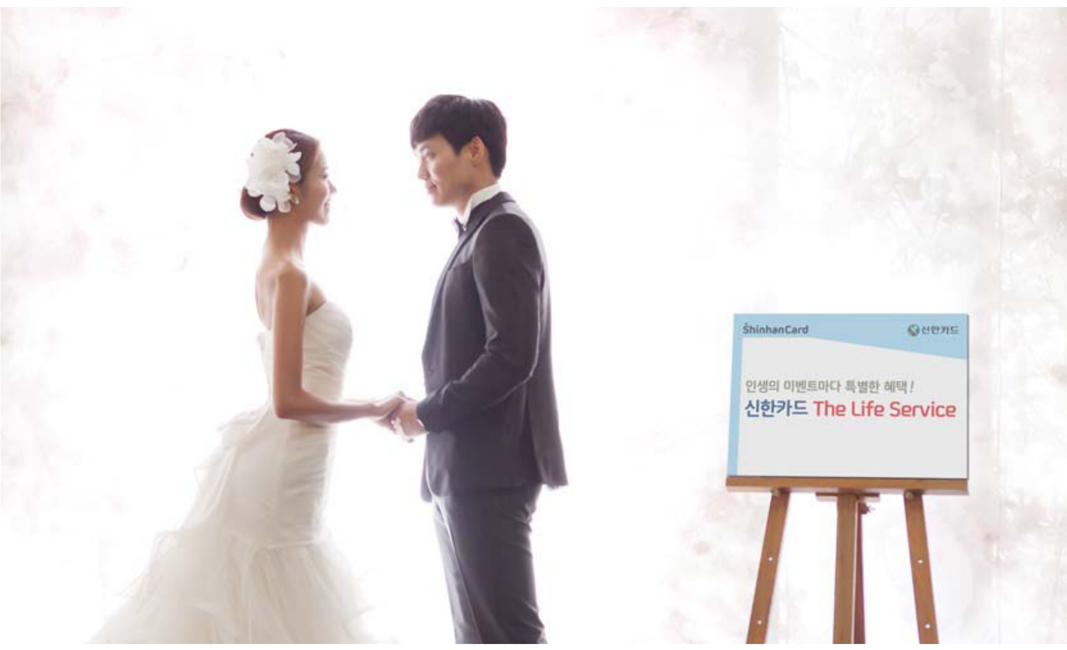
서비스업종은 메르스 등의 여파로 1분기 0.9%에서 2분기엔 0.1%로 감소했다.

금융과 보험업, 부동산, 임대업은 증가했지만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줄어든 탓이다.



이밖에 제조업은 휴대폰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0.8% 증가했고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건설이 늘어 0.4% 증가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신한카드, 결혼·이사시 최대 50만원 캐시백-제휴사 특별서비스 신한카드는 결혼과 이사, 장례업종에서 사용시 혜택을 주는 'The Life Service'(이하 더 라이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대 50만원 캐시백과 제휴사 특별 혜택으로 구성됐다. /신한카드 제공

신한금투, 새로 출시되는 ELS 9종 공모

'첫스텝80 시리즈 ELS'등

신한금융투자는 연 4.0%의 수익을 추구하는 80배리어 ELS를 포함한 9종의 ELS를 오는 24일까지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ELS11403호'는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구조에 3년만기 상품으로 KOSPI200, HSCEI, EURO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조기상환 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기준가격의 80%(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75%(30개월), 60%(36개월) 이상인 경우 연 4.0%의 수익금과 원금이 상환된다. 만기상환 시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 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원금 및 수익금(12.00%)이 상환되며 기초자산의 종가가 하나라도 최초 기준가격의 60% 미만이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미국 달러로 청약과 결제가 이뤄지고 '첫스텝80 시리즈 ELS'와 같은 구조로 설계된 'USD ELS 11387호'도 출시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신한금융투자는 이 외에도 다양한 기초자산과 수익구조를 갖춘 ELB와 ELS 상품을 오는 24일까지 판매한다. 이 상품들은 금융투자상품 분리에 따라 원금보장형 상품은 저위험(4등급), 원금비보장형 상품은 고위험(2등급)으로 분류된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고, 신한금융투자 지점 및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김보배 기자 bobae@

KB금융, 2분기 순익 3396억원

희망퇴직에 전년比 44%↓

KB금융그룹은 올 2분기 339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분기(6050억원) 보다 43.9% 감소한 규모로 여기에는 지난 5월 단행한 희망퇴직 비용이 반영됐다.

올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 순이익은 944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7515억원) 보다 25.7% 증가했다.

상반기 순이자이익은 순이자마진 하락 영향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1%(663억원) 감소한 3조 845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타영업손익에서는 2분기 인식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식 매각익 1382억원과 안심전환대출 매각익 618억원으로 상반기 중 228억원의 순손실을 나타냈다.

다만 2분기 895억원의 이익이 발생해 1123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던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다.

KB금융 관계자는 "2분기 희망퇴직 관련 비용 3454억원이 인식됐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나며 희망퇴직 비용은 향후 3~4년에 걸쳐 회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익 안정성은 확대됐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식 매각익(1382억원) 등 경상적 수준의 분기순이익에 근접하는 실적을 시현했다"고 평가했다.

계열사별로는 보면 KB국민은행은 올 상반기 730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2분기는 지난 1분기보다 46.7%(2222억원) 감소한 2540억원으로 나왔다.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2분기 1.61%로 전분기 대비 0.11%p 하락했다.

건전성 지표인 은행의 총 연체율은 6월말 기준 0.51%를 나타내며 전년말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같은기간 KB국민카드의 연체율은 1.46%를 기록해 전년말 대비 0.16%p, 지난 3월말 대비 0.12%p 개선됐다.

한편 KB금융의 6월말 그룹 총자산(관리자산 등 포함, 각 계열사 자산의 단순합계)은 431조 70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24일 계열사로 편입한 KB손해보험의 자산총계를 포함한 그룹의 총자산은 457조 9000억원에 달한다.

신탁자산을 포함한 KB국민은행의 총자산은 313조1000억원을 차지했다. 신용카드부문 자산은 14조3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4%(0.2조원) 줄었다.

KB금융 관계자는 "KB손해보험 자회사 편입으로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지위를 확대하게 됐다"며 "그룹의 브랜드 파워 강화와 고객기반 공유, 교차판매 및 복합상품 출시, 방카슈랑스 확대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 제공 ▲리스크 관리 강화 ▲고객중심 영업체계 구축 ▲미래성장동력 강화 등의 전략적 방향을 굳건히 견지할 것"이라며 "고객과 시장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최고로 신뢰받는 리딩금융그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LH vs 포스코 '청라 3000억 소송' 오늘 결판

法, 손배·토지대금 반환 청구 결과 발표
LH, 패소땐 금융부채 감축 노력 헛수고
포스코건설, 1000억원 만기회사채 우려

청라지구를 둘러싼 3000억원대 민사소송 결과가 24일 발표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포스코건설 등 10개 출자사 간 갈등으로 촉발된 이 소송결과에 따라 LH와 건설사들의 향방이 뒤바뀔 전망이다.

23일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청라국제업무타운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3047억원 규모의 민사소송 결과가 이날 발표된다. 이날 소송결과에는 최근 LH가 이들 출자사들에게 맞소송(반소)한 1935억원도 포함될 예정이다.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주관사인 포스코건설을 포함해 롯데건설과 두산건설, KCC건설, 한라, 서희건설, 코오롱글로벌, 신세계건설, 쌍용건설, 삼환기업 등 10개 건설사가 외국계 펀드인 마운틴블루와 함께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회사(SPC)다.

이 타운은 앞서 지난 2007년 LH와 사업협약을 맺고 청라국제도시 내 127만㎡ 부지에 오는 2021년까지 총 6조2000억원을 투자해 세계무역센터와 국제금융센터, 생명과학연구단지, 특급호텔, 카지노 등을 건설하는 청라국제업무지구 개발권을 따냈다.

소송의 최대 쟁점은 청라지구 사업의 용도변경 건이다.

건설사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LH가 무리하게 기존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전체 면적의 30%인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바꾸고 호텔과 카지노·백화점 대신 비즈니스호텔과 대형마트·지식산업센터를 허용해달라고 LH에게 요구했다.



청라국제업무타운 조감도.

하지만 LH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문제로 지난 2013년 4월에는 청라국제업무타운과의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했다.

LH 입장에서는 자본금 축소와 외국인 투자비율 하향, 지식산업센터 허용 등을 수용한 만큼 더 이상의 용도변경은 힘들다는 것.

LH 관계자는 "이미 건설사들과 용도변경을 합의했지만 추가적인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한 것은 총 6171억원의 토지대금 중 네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할 중도금 1630억원을 연체했고, 사업협약이행보증금 1860억원도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송결과에 따라 당사자간 희비가 크게 교차할 전망이다.

LH의 경우 최근 부채감축 노력이 자칫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앞서 LH는 지난 2013년 말 105조7000억원에 달했던 금융부채를 이달 초 94조7000억원까지 줄였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출자사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토지대금 1781억원과 사업무산 등으로 인해 손해금액 1266억원 등 총 3047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고스란히 부채로 추가된다.

출자사들도 상황이 녹록치 않다.

주관사인 포스코건설의 경우 이달까지 1000억원의 만기도래회사채를 갚아야 한다. 여기에 정동화 전 부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불안 요소다.

이밖에 쌍용건설은 지난 3월 법정관리에서 졸업한 이후 사업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다.

출자사 한 관계자는 "소송액수가 큰 만큼 이번 소송결과에 따라 LH와 출자사 모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며 "LH가 패소하면 3000억원 이상의 부채를 감당해야하고 출자사들이 패소하면 그간 사업손실금에 배상까지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단지명	위치	시기(예정)	전용(㎡)	총 가구수
가락시영 재건축	송파구 가락동	8월	59~123	3804
래미안 에스티지S	서초구 서초동	9월	84~134	593
래미안 미드카운티	동대문구 답십리동	9월	57~123	1009
래미안 파크스위트	광진구 구의동	9월	59~145	854
래미안 센터피스	성북구 길음뉴타운	10월	59~109	2352
래미안 로이파크	동작구 사당동	10월	59~123	668
래미안 베라힐즈	은평구 녹번동	11월	59~84	1305
서초한양 재건축	서초구 반포동	11월	59~99	409
계				10994

삼성물산, 하반기 서울서 1만가구 공급

모두 재개발·재건축 단지
작년 전국 공급물량 두배
가락시영 3804가구 최대



래미안 에스티지S 조감도.

삼성물산은 올 하반기에 서울에서만 8곳, 총 1만994가구를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전국 공급물량(5058가구)의 두 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이번 물량은 모두 재개발·재건축 단지다. 일반분양 물량은 3091가구로, 7월 이후 서울에서 공급되는 총 일반분양분(1만289가구)의 30%에 달한다.

강남권에서는 국내 단일규모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가락시영을 8월 공급한다. 이 단지의 삼성물산 시공분은 3804가구다.

이어 ▲서초 우성2차(9월, 593가구) ▲사당1구역(10월, 668가구) ▲서초한양 재건축(11월, 409가구) 등이 공급된다.

강북권에서는 오는 9월 답십리·전농 래미안 타운에서 1009가구를 비롯해 ▲구의1구역(9월, 854가구) ▲길음2구역(10월, 2352가구) ▲녹번1-2구역(11월, 1305가구) 등이 대기 중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래미안의 높은 브랜드 가치와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 특화로 래미안만의 차별화된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한라건설 임직원 '미래 전략 찾기' 머리 맞댄다 중견건설업체인 한라는 지난 17일 경기도 기흥 소재 한라인재개발원에서 지속성장을 위한 '2015년 미래 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상반기에 추진했던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임직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내달 '세종 더 하이스트' 1417가구 분양

포스코·계룡·금호 공동 공급

프로젝트명		세종시 2-1생활권 P3구역 더 하이스트(THE HIGHEST)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2-1생활권 P3구역		
		L3블록	L4블록	M7블록
시공		포스코건설, 계룡건설, 금호건설		
건축개요	규모	지하2~지상 19층 8개동	지하1~지상 22층 17개동	지하1~지상 29층 8개동
	총 가구 수	319가구	765가구	333가구
	전용면적	57~59㎡	57~120㎡	84~124㎡
분양문의		044-867-7116		

포스코건설은 오는 8월 계룡·금호건설과 공동으로 세종시 2-1생활권 P3구역에 '세종시 2-1생활권 P3구역 더 하이스트(THE HIGHEST)'를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세종시 특별건축구역 내 컨소시엄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L3블록 지하 2층~지상 19층, 8개동, 319가구, L4블록 지하 1층~지상 22층, 17개동, 765가구, M7블록 지하 1층~지상 29층, 8개동, 333가구 등 총 1417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은 L3블록 57~59㎡, L4블록 57~120㎡, M7블록 84~124㎡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세종시 대표 대중교통수단인 간선급행버스(BRT) 정류장과 가장 인접해있다. 복합커뮤니티와 문화국제교류지구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몰려있는 중앙행정타운과 세종시 중심상업지구가 위치해 있다. 생활권 내에 초·중·고교가 들어설 예정이며, 1번 국도를 통해 KTX오송역, 서세종IC, 남세종IC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전가구는 남향위주배치로 일조량이 우수하다. 단지 내에는 스카이커뮤니티, 그라운드커뮤니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세종시 대평동 264-1번지에 마련된다. /김형석 기자

현대차, 환율 직격탄… 5분기 연속 영업익↓

엔저공습·유로화 약세 영향
2분기 매출 0.3% 늘었지만
영업익은 오히려 16% 급감

현대자동차가 대내외 악재속에 올해 2분기에도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현대차는 23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컨퍼런스콜을 개최해 올해 2분기 매출액 22조8216억원, 영업이익 1조7509억원, 당기순이익 1조790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0.3% 늘었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6.1%, 23.8%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인 1조7510억과 비슷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 이후 5분기 째 줄었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는 매출액 43조7644억원, 영업이익 3조33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 17.1%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3조77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 감소했다.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글로벌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241만5777대를 판매했다. 국내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33만5364대를 판매했다. 해외시장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줄어든 208만413대를 팔았다.

이원희 현대차 재경본부장(사장)은 "달러화 대비 원화 약세, 유로화 약세에 따라 업체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상반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며 "일본 업체의 경우 엔저를 등에 업고 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이날 주당 1000원의 중간배당을 결정했다. 배당금 총액은 2687억원 규모다. 현대차는 배당성향을 단기적으로는 15%, 중장기적으로는 25~30%까지 늘릴 방침이다.

현대차는 하반기에도 어려운 경영환경이 이어지고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성장 기조가 확산하고 주요 시장에서의 자동차 수요가 둔화·감소하면서 향후 시장 예측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 사장은 "중국시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 중국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낮아졌고 소비심리도 위축돼 있다. 소비 형태가 양극화돼 저가의 중국로컬업체가 성장세를 보였다. 그 결과 현대차 중국법인도 수익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하반기에 현대차는 신차 투입 등을 통해 연간 판매 목표 505만대를 차질 없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형 투싼을 미국과 유럽에서는 7~8월, 중국에서는 9월에 투입한다.

인도에서는 전략형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 크레타를 일정보다 앞당겨 이달 출시한다.

이 사장은 "최근 환율 동향을 고려했을 때 향후 긍정적인 환율 효과가 기대된다"며 "신차 출시가 집중된 하반기에 판매 증대와 비용 절감 활동을 전개해 수익성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기자 yonggi@metroseoul.co.kr

티볼리 덕!… 쌍용차 내수판매 '반기 최대'

상반기 매출 1조5959억원
전년동기보다 36.6% 증가

쌍용자동차가 올해 2분기에도 영업이익 흑자전환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사운을 걸고 출시한 티볼리의 활약으로 내수판매가 급증하며 11년 만에 반기 최대 실적을 거뒀다.

쌍용차는 2분기 매출액 8355억원, 영업손실 198억원, 당기순손실 227억원의 실적을 냈다고 23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50% 줄고 영업손실은 26.92% 악화된 수치다.

당기순손실은 22.24% 개선됐다. 올해 1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9.88% 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1.84%, 27.34% 개선됐다. 쌍용차는 상반기 매출 1조5958억원, 영업손실 540억원, 당기순손실 53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66% 줄고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227.98%, 192.34% 불었다. 쌍용차는 상반기 내수 4만5410대, 수출 2만4390대(반조립제품 포함) 등 총 6만9800대를 판매했다.


쌍용자동차 티볼리 디젤.

티볼리 판매 물량 증대에 힘입어 업계 최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내수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6.6% 증가한 4만5410대를 기록했다. 2004년 상반기(5만4184대) 이후 11년 만에 반기 최대 실적이다.

티볼리는 4월 이후 3개월 연속 3000대 이상 판매됐다.

상반기 누계 기준 1만8000여대를 기록하며 내수 판매 증가세를 주도했다.

수출은 러시아 등 신흥시장 부진과 유로화 약세 등 수출여건 악화로 전년 동기 대비 40.5% 감소했다.

최종식 쌍용차 대표이사는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티볼리 신차효과로 내수에서 업계 최대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하반기에는 티볼리 가솔린에 이어 디젤과 4WD 모델이 투입되는 등 한층 라인업이 강화되는 만큼 수익성 역시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현대·기아차, 평창올림픽에 통큰 지원

차량 4100대에 후원금까지
국내 스폰서십 중 최대규모

현대·기아차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현대·기아차는 23일 강원도 평창 켄싱턴 플로라 호텔에서 정진행 현대·기아차 사장과 조양호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8평창동계올림픽·동계장애인올림픽 공식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현대·기아차의 후원규모는 국내 스폰서십 중 최상급인 '공식파트너(Tier1)'로, 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 대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선수단 수송차량, 의전차량, 대회운영 차량 등 총 4100여대와 후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기아차는 ▲대회 공식차량 공급 ▲공식파트너 명칭 활용 ▲대회마크 사용하는 프로모션 ▲올림픽 현장 내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할 계획이다.



조양호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왼쪽)과 린드버그 IOC 조정위원장, 정진행 현대·기아차 사장이 협약서를 맞잡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조양호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류기업인 현대·기아차가 흔쾌히 후원을 결정해 감사하다"며 "차량지원 등 든든한 지원을 얻은 만큼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해 역대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기자 fun@

쉐보레 트랙스 디젤 계약 돌입… 2195만원부터

1.6ℓ 친환경 엔진 장착
6단 자동변속기 첫 적용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Chevrolet)가 소형 SUV 트랙스(Trax)에 독일산 1.6ℓ 고성능 친환경 디젤 엔진과 3세대 6단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트랙스 디젤 모델의 9월 본격 판매 개시에 앞서 23일부터 계약 접수에 돌입했다.

트랙스는 지난 2013년 한국지엠이 주도한 GM 글로벌 소형 SUV 프로젝트의 결과로 탄생해 한국에 첫 출시됐다. 기존 1.4ℓ 가솔린 터보엔진 모델에 더해 프리미엄 디젤 엔진 모델을 새로 선보이며 국내 소형 SUV 시장에 새 지평을 열 계획이다.

트랙스 디젤은 GM 유럽 파워트레인이 개발하고 독일 오펠(Opel)이 공급하는 4기통 1.6 CDTI(Common rail Diesel Turbo Injection) 디젤 엔진을 장착해 135마력의 최대출력과 토크 32.8kg.m의 성능으로 2.0 디젤 엔진과 대등한 퍼포먼스를 갖췄다.



트랙스 디젤에 가장 먼저 채택된 3세대 6단 자동변속기는 변속기 내부 효율을 기존 모델 대비 20% 개선하고 기어비를 최적화해 주행과 변속 시 동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가속성능을 대폭 향상시켰다.(복합연비 14.7km/L, 고속주행연비 16.4km/L, 도심주행연비 13.5km/L).

쉐보레 트랙스 디젤의 가격은(자동변속기 기준) ▲LS 2195만원 ▲LS 디럭스 패키지 2270만원 ▲LT 2355만원 ▲LT 레더 패키지 2436만원 ▲LTZ 2495만원이다.

/김종훈 기자

기아 카니발, 美서 '상품성만족도' 1위

JD파워 조사 829점 획득

기아자동차의 카니발(사진)이 미국 시장조사업체 제이디파워(J.D. Power)사가 최근 조사한 '2015 상품성만족도(APEAL)'에서 미니밴 차급 1위에 올랐다

23일 기아차는 카니발이 이번 조사에서 1000점 만점 중 829점을 획득해 혼다 오딧세이(2위), 도요타 시에나(3위)를 제치고 미니밴 차급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카니발은 디자인, 주행성능 등의 항목에서 지난해보다 62점이 상승했다고 기아차는 설명했다.

기아차는 카니발 외에도 리오(국내명 프라이드), 쏘울 이 각각 스몰카, 콤팩트 MPV(다목적차량) 차급에서 2위에 올라 차급별 TOP3에 모두 3개 차종을 올렸다.

현대차는 쏘나타, 벨로스터, 제네시스 쿠페 3개 차종이 TOP3를 달성했다.

한편 현대차는 브랜드 순위에서 미니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순위는 지난해 비해 한 계단 하락했으나 점수는 5점 상승한 809점을 기록했다.

기아차는 지난해보다 7점 상승한 798점을 획득해 브랜드 순위 7위에 올랐다.

/정용기 기자



LGD, 올 2분기도 방긋… 13분기째 흑자

대형프리미엄 제품 주력 영업익 전년比 199% 증가

LG디스플레이가 올 2분기에 작년보다 200% 가까이 늘어난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13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 달성을 기록했다.

LG디스플레이(대표이사 사장 한상범)는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디스플레이 2분기 실적발표회에서 올 2분기 매출 6조7076억원, 영업이익 4881억원을 달성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5조9790억원에 비해 12%, 영업이익은 1631억원에 비해 199% 증가한 실적이다.

LG디스플레이는 수익성이 낮은 패널 생산을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대형 프리미엄 제품에 주력했던 것이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TV 디스플레이 크기는 40~50인치 이상 대형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는 2008년 32.6인치였던 액정표시장치(LCD) 평균 크기가 2014년인 38.6인치로 늘었고 2018년엔 41인치까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세트업체들의 구매 조정에도 불구하고 TV시장의 유연한 대응과 IT 기반한 중소형 제품의 고객 확대로 13분기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반면 시황 부진에 따른 IT 수요 감소와 판매가 하락의 영향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각각 4%, 34% 감소했다.

올 2분기 매출액 기준 제품별 판매 비중은 TV용 패널이 40%, 모바일용 패널이 28%, 태블릿 PC와 노트북 PC용 패널이 16%, 모니터용 패널이 16%를 차지했다.

LG디스플레이는 하반기에 대형, UHD, AIT 등 프리미엄 제품 비중을 증대하고 OLED 시장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프로모션에 나선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플렉서블 OLED에 투자해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사이즈와 해상도의 OLED 제품 라인업을 구축한다.

김상돈 LG디스플레이 최고재무책임자(전무)는 "3분기 면적기준 출하량은 전분기와 유사하고, 판가는 하락세를 보이겠지만 업체별로 가격 변동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장 상황에 맞춘 유연한 생산라인 운영과 탄력적인 가동률 전략을 지속해 이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무는 "회사의 편의에 따라 중요한 주주 정책을 움직일 수 없는 게 제 생각이다"며 "2011년 적자 이후 배당을 시작했고, 한 번 배당하면 그 원칙은 지킬 생각"이라고 전했다.

/임은정 기자 eunj71@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23일 오전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 '고객가치창조룸'에서 열린 투자양해각서 체결식에서 김익수 구미시의회의장(왼쪽부터), 심학봉 국회의원, 남유진 구미시장,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김태환 국회의원, 권동섭 LG디스플레이 노조위원장이 투자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제공

LGD, 구미공장에 1조500억 투자

6세대 플렉서블 OLED라인 패널 생산효율 4배 기대

LG디스플레이는 구미공장 내 6세대 플렉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신규라인(E5) 건설에 1조5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23일 공시했다. 앞서 LG디스플레이는 지난 22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투자 규모와 시기를 결정했다.

이날 구미공장에서는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남유진 구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OLED 신규 투자 및 행정지원에 관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경북 구미 공장 내에 위치할 E5 라인에 대한 투자 규모는 LG디스플레이 자기자본의 8.9%에 해당한다.

월 7500장 생산규모(원장기판 투입기준)의 6세대(1500㎜×1850㎜) 규격으로 2017년 상반기 중 양산에 들어간다. 6세대 라인은 5.5인치 제품을 생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원장기판 1장에 200개 넘는 패널을 생산할 수 있어 기존 4.5세대 라인(730㎜×920㎜) 대비 4배 이상 효율이 높다.

현재 LG디스플레이는 파주 공장에서 대형 OLED 패널과 함께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용 OLED 패널을 만들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구미 공장에서 주로 폴더블과 스마트폰,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등 중소형 디스플레이 제품을 만들 계획이다.

/임은정 기자

LG전자, 메가와트급 ESS통합 시험설비 구축

106억 투자 국내 최대규모 1.4MWh 배터리 등 장착

LG전자가 국내 최대 규모의 ESS(에너지저장장치) 통합 시험 설비를 구축했다.

LG전자는 23일 인천캠퍼스에서 'LG전자 MW(메가와트)급 ESS통합 시험설비 가동식'을 열었다. 이 행사에는 오태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위원장과 이상봉 LG전자 에너지사업센터장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106억원을 투자해 구축한 MW급 ESS통합 시험 설비는 국내 최대 규모다. MW급 ESS제품을 출시하기 전 실제 작동 환경에서 성능 규격 시험이 가능하도록 용량이 1.4MW인 계통 모의 시험장치를 설치했다. 또 1.4MWh 배터리와 1MW 모의 부하 장치,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을 갖췄다.

오태규 위원장은 축사에서 "MW급 시험 설비 구축으로 국내에도 완벽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친환경 에너지산업 분야를 주도할 대용량 제품의 출시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LG전자 연구원들이 국내 최대 규모인 ESS 통합 시험 설비를 이용해 1MW규모 ESS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기존 국내 계통 모의 시험장치의 최대 용량은 350kW였다. 지금까지 대형 빌딩과 발전용인 MW급 ESS제품은 현장 설치 전 부분적인 성능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어 완벽한 품질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LG전자는 지난해 8월 ESS BD(Business Division)을 공식 출범하고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같은 해 LG화학 익산공장에 3MW규모의 ESS 제품 설치를 시작으로 올 초에는 스마트그리드 보급사업으로 대림산업 전주공장에 1MW급 ESS 설비를 공급하기도 했다.

LG전자는 MW급 대용량 시험 설비의 규모를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빌딩용과 발전용 ESS제품에서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와 연계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 ESS분야서 경쟁 우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상봉 LG전자 에너지사업센터장은 "LG는 그룹 차원에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지속 투자해 경쟁력을 갖춰 왔다"며 "우수한 품질과 고효율의 제품을 앞세워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한진 기자 hjc@

LS산전

2분기 영업익 398억원 전년 동기比 35% 껑충

LS산전은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397억71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5.71% 증가했다고 23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534억150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8%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275억1100만원으로 12.02% 줄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4%, 영업이익은 129% 증가했다.

LS산전은 "이라크 사업과 글로벌사업 등 외부환경 악재가 고스란히 실적에 반영됐던 전분기와 달리 2분기에는 안정적 사업구조에 기반해 실적 반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기존의 전력 기기 분야 해외사업이 크게 성장한데다 장기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온 융합사업의 수익성도 대폭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LS산전은 지난해 수주한 이라크 전략 인프라 매출이 3분기부터 본격 반영되는데다 한전의 주파수조정용(FR)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매출도 하반기부터 연결되는 만큼 실적 개선세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 무선 360 오디오서 '멜론'도 듣는다

튠인 등 스트리밍 업체와 제휴

삼성전자는 24일부터 '무선 360 오디오'를 통해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의 음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은 멜론 외에 벅스, 디저, 300만 이상의 팟캐스트와 10만 개 이상의 라디오 채널을 보유한 튠인 등 다양한 음원 스트리밍 업체와 제휴해 '무선 360 오디오'로 즐길 수 있는 음원 선택권을 넓혀왔다.

멜론의 음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무선 멀티룸 오디오앱'의 멜론 계정에 로그인하면 된다. 멜론의 최신 음악, 멜론 차트, 멜론 DJ, 마이 뮤직, 검색 기능은 물론 '무선 360 오디오'에 연결해 음원을 즐길 수 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무선 360 오디오 전용 앱인 '무선 멀티룸 오디오앱'으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해 음악을 끊김 없이 들을 수 있다.

또 여러 개의 음원을 각기 다른 기기에서 재생하는 멀티룸 기능도 가능하다.

/임은정 기자



삼성전자 모델이 삼성 무선 360 오디오의 '무선 멀티룸 오디오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멜론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2015년에도
통쾌한
웃음은
계속
됩니다
연극
늙은도둑이야기
COMING SOON · COMING SOON
강남앵콜
COMING SOON · COMING SOON
2015. 4. 8 ~ OPENRUN | 코엑스아트홀
작 이상우 | 연출 박정규 | 출연 박철민, 노진원, 정경호, 오민석, 서동갑, 우상욱, 성열석, 맹상열, 민성욱, 안세호, 이호연, 이형구 |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 문의 02-3672-0900
기획 제작 이다. Nine Story

SK이노, 2분기 영업익 역대 두번째 최고치

<9879억원>

정제마진은 4분기 회복 예상… 하반기 실적 '불투명'
상장추진 중단한 SK루브리컨츠, 수익성 개선에 집중

SK이노베이션은 23일 올해 2분기 영업이익 9879억원을 기록해 분기 기준으로 창사이래 두 번째 높은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분기 최대 실적은 지난 2011년 1분기(매출액 17조684억원, 영업이익 1조3562억원)였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은 컨퍼런스콜을 개최해 올해 2분기 실적과 향후 경영방향을 발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2분기 매출액 12조9983억원, 영업이익 9879억원, 당기순이익 5875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SK이노베이션은 석유사업의 정제마진과 화학사업의 주요 제품 스프레드의 강세 등 시황 호조와 유가 안정화에 따른 재고관련 손실 소멸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석유사업 매출액은 유가안정세로 전분기 대비 5.9% 증가한 9조



5141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6021억원 증가한 7547억원을 기록하며 SK이노베이션 계열 전체의 실적개선을 이끌었다.

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윤활유부문 자회사인 SK루브리컨츠 상장 추진을 중단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상반기 실적 개선, 차입금 축소 등을 통해 재무구조가 크게 안정된 점 등을 고려해 당분간 SK루브리컨츠의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사업은 에틸렌, 파라자일렌, 벤젠 등 주요 제품의 강세에 따라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110.3% 증가한 2429억원을 기록했다. 하반기에는 생산시설의 정기보수 완료에 따른 공급 증가로 제품 스프레드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SK이노베이션은 전망했다.

윤활유사업은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26.8% 감소한 415억원을 기록했다. 향후 주요 국가의 환경규제 강화로 프리미엄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SK이노베이션은 점진적인 시황 개선을 예상했다.

SK이노베이션은 7월 들어 급락한 정제마진은 4분기 후 회복할 것이라 예상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7월 정제마진이 급락한 것은 중동 신규 정제설비의 풀 가동, 중국 내수 부진, 미국 정제시설의 높은 가동률 때문"이라며 "3분기에도 정제마진 약화는 불가피하겠지만 4분기 들어서 정유사의 가동률 조정과 동절기 수요가 늘어나 서서히 회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언제 어디서나 꺼내 쓰는 데이터!

SKT 'T포켓파이' 출시

SK텔레콤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다양한 기기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LTE 무선 모뎀 단말기 'T포켓파이'를 24일 출시한다.

T포켓파이(T Pocket-Fi)는 주머니를 뜻하는 포켓(Pocket)과 와이파이(Wi-Fi)를 결합해 '휴대성이 용이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의미한다. T포켓파이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모두 10cm를 넘지 않는다.

T포켓파이는 데이터를 최대 10Mbps의 속도로 제공해, 고객은 기존 와이브로보다 한층 빨라진 속도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고객은 월정액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만6500원과 2만4750원의 전용 상품으로 각각 10GB와 20GB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통신사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서비스는 24일부터 하이마트를 시작으로 28일 이후 SK텔레콤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공식채널 T월드 다이렉트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출시를 기념해 올해 12월 말까지 가입하는 고객에게 3개월간 매월 3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서비스를 1개월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단을 2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모집하며 서울역, 부산역 및 코엑스 등에서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체험단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포켓파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문경 기자 hm0108@

박용만 "최태원·김승연 회장 사면 간곡 요청"

"국가이익 차원, 사면에서 기업인 빠지면 역차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 회장)이 8월15일 광복절 특별 사면을 앞두고 기업인 사면에 관해 다시 한 번 간절한 요청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인 포함 사면 검토 발언으로 광복절 특사가 당·정·청 차원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박 회장은 22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40회 포럼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면은 국민화합, 국가이익 차원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만일 사면에서 기



22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서울 상공회의소 회장단 긴급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인이라고 빠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드는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직접 거명하면서 "그들이 다시 모범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는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해 줄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전망에 대해 그는 "아직도 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 2년 정도 남았다"며 "회복기가 찾아와도 폭발적인 성장세는 있지 않을 것이며 저성장세의 이른바 '뉴노말(New Normal)'시대에 누가 얼마나 빨리 적응하고 재정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양성운 기자 ysw@

SKT, 사생활보호에 뛰어난 '갤럭시A8' 출시

시선 차단 'T 안심스크린' 적용

SK텔레콤이 24일 출시하는 60만원대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A8'에 사생활 보호 시선 차단기능인 'T 안심스크린'을 국내 출시 단말기 중 최초 적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용 방법은 단말 상단의 커튼 메뉴를 내려 T안심스크린을 터치하면 시선차단기능의 보호화면이 작동한다. 버스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친구와의 대화, 개인적인 동영상 시청 등 타인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상황일 때 이 서비스가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갤럭시 A8에는 SK텔레콤의 보안서비스인 'T안심' 서비스(안심클리너·안심잠금·안심백업)도 탑재돼 단말기의 분실·도난 방지와 자동 기능이 지원된다.

안심클리너는 휴대전화 충전 시 전원 코드가 분리되면 도난 경보가



울리고 단말기 최적화 작업을 자동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다. 안심잠금 기능은 고객이 단말기 분실 시 스마트폰 전원 강제 종료를 방지함으로써 분실한 스마트폰의 위치를 빨리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갤럭시 A8은 출고가 64만 9000원이며 SK텔레콤의 밴드 데이터 100요금제를 가입하면 최대 33만원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중간대 요금제인 밴드 데이터 51 요금제만 사용해도 단말기 할부 원금이 30만원대로 낮아진다.

SK텔레콤은 초기 구매 고객을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출시 첫날인 24일부터 이달 31일까지 개통한 고객은 온라인 T월드다이렉트에서 안내되는 프로모션에 신청해 삼성 정품 슬림 베터리팩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정문경 기자



CJ헬로비전, 복수 알뜰폰 사업 개시 CJ헬로비전은 KT에 이어 SKT와 이동통신망 도매 제휴를 맺고 알뜰폰(MVNO) 사업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사의 알뜰폰 브랜드 '헬로모바일'에 가입하려는 고객은 선택권이 늘어나 SKT, KT 두 통신사 중 한 곳을 고를 수 있게 됐다. 23일 서울 마포구 CJ헬로비전 본사에서 사내 모델들이 복수 알뜰폰 사업 개시를 홍보하고 있다. /정문경 기자

카시트·아기띠 들고 中으로

中 '두 자녀 정책' 전면 추진 유·아동용품업체들 '희색' 상해 국제박람회 대거 참가



2015 상해 국제 유아용품박람회에 마련된 소르베베 부스. /YKBnC 제공

100조원대의 달하는 중국 유아동 시장이 열렸다. 중국 정부가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국내 유아용품 업체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중국 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일부 지역에서 진행돼 왔던 '두 자녀 정책' 관련규정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황제 특수를 기대하고 중국 시장에 진출했던 국내 유아용품 업계가 두 자녀 특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유아동관련 전체 소비규모가 1조 위안, 한화로 약 170조원 규모에 달한다. 두 자녀 정책 시행으로 중국 유아용품 시장은 2018년이면 2013년보다 2.3배 성장한 6000억 위안(한화 약 98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제로투세븐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중국 상해 롱통 생활광장에서 2016 봄·여름 유아동 의류 브랜드 수주회를 열었다. 수주회 기간 현지 대리상과 입점 계획 대리상·백화점 바이어 등 총 300여 명이 방문했다. 중국 고객 선호도를 반영한 중국 단독 상품을 출시, 이 상품의 비중을 약 35%까지 확대해 선보였다. 2007년 중국 법인을 세운 이 회사는 최근 6년 간(2009~2013년) 연평균 34%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유아 박람회를 찾는 업체들도 있다. 특히 현지 매장을 전개하지 않는 업체들도 박람회에 참여해 브랜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2015 상해 국제 유아용품박람회(2015 CBME)는 유럽 퀼른유아용품박람회와 북미 ABC키즈엑스포와 함께 세계 3대 유아용품 전시회로 꼽힌다.

유아용 카시트 업체 다이치는 2012년, 2014년에 이어 올해까지 총 3회 째 이 박람회에 참여하고 있다. 단독 부스로 참가해 신제품 디-가드를 비롯해 퍼스트세븐·듀웰 등 인기 제품을 선보인다. 올해 첫 참가한 YKBnC는 힙시트 브랜드 소르베베로 무려 총 6개의 부스를 마련, 힙시트와 액세서리류 전제품을 소개한다. 업체 측은 오픈 첫날부터 해외 바이어들의 방문이 이어지는 등 이번 박람회에서 고무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업체는 이번 박람회를 시작으로 중국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열리는 행사이지만 전 세계 바이어들이 찾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부스를 구성해 참여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며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관람객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장마에 레인부츠·레인코트 '불티' 최근 지속되는 장마에 롯데월드몰(대표 김창권) 내 레인부츠·레인코트 제품이 인기다. 23일 롯데월드몰에 따르면 이달 레인코트를 찾는 고객은 6월에 비해 30~40% 늘었다. 특히 화려한 색의 레인코트 매출이 높다. 롯데월드몰 매장의 레인코트 가격은 4만8000원에서 7만5000원이다. /롯데자산개발 제공

韓-日 롯데, 신동빈 '일체경영' 강화

태국 방콕 면세점 사업 제과사업 협력 확대 등



한국과 일본 롯데가 손잡고 내년 3월 태국 방콕에 면세점 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60·사진)이 일본의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을 계기로 한·일 '일체경영'을 강화하고 있으며 태국 면세점이 제 1탄이라고 보도했다.

운영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은 한국 롯데가 80%, 일본 롯데홀딩스가 20%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사업 전개에 따라 비율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또 양국 롯데의 협력은 이례적이라고 밝히며 두 그룹의 중복사업인 제과 산업의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일본 롯데가, 중국과 인도는 한국 롯데가 맡는 암묵적 이해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정기적으로 열리는 제과부문의 연구회의 등을 제외하면 양국 롯데의 협력기회는 전무했다.

신문은 이런 상황이 변한 것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 외에 각자가 성장 한계에 도달했다는 사정 때문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또 양국 롯데가 제과사업에서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며 일례로 태국에서는 한국산, 중국에서는 일보산 제품의 투입을 늘리는 등 상호 보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미래형 스마트 공간 '창조경제 편의점'

세븐일레븐, 오늘 오픈



세븐일레븐(대표 정승인)이 미래형 스마트 공간과 지역 맛집을 융합한 '창조경제 편의점'을 24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서울 명동 세븐일레븐 중국대사관점에 있는 창조경제 편의점은 일반 편의점 공간인 1층과 창조경제 공간 2층을 연결한 구조다. 1층 편의점에서는 구매한 상품이나 2층 카페에서 판매하는 어묵을 먹으며 인터넷을 검색하고 유투브 영상도 볼 수 있다. 2층의 휴식공간에는 터치형 웹서핑과 경품게임을 등을 즐길 수 있는 '스마트 테이블'이 들어서 있다.

한 쪽 벽면에는 풀HD스크린 10대를 연결해 만든 '미디어 윈도우'가 설치됐다. 이 밖에도 쌍방향 홍보물인 '디지털 포스터'와 '디지털 가격표' 등도 볼 수 있다. /김성현 기자

BGF리테일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BGF리테일(대표 박재구)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BGF본사에서 주요 시중은행 4개사와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에 참여한 은행은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이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사용하는 외상매출 채권을 1~3차 협력사가 대기업 수준의 낮은 금리로 시중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다.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협력사가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은 약 1200억원 규모다. BGF리테일 측에 따르면 기존 1차 협력사에만 국한된 제도가 2·3차 협력사로 확대됐다. 이로써 중소협력사들은 BGF리테일의 신용도로 낮은 금리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김성현 기자

홈플러스 노조, 2차 소송인단 모집

Home plus

'통상임금' 1차 승소 판결

홈플러스(대표 도성환) 노동조합이 대규모 소송인단 모집과 함께 통상임금 2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홈플러스 노조는 지난 6월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노조는 지난 2013년 홈플러스(대표 도성환)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으며 근속·직수수당·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아 법원으로부터 '3억4147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앞으로 받을 상여금과 퇴직금은 소폭 상승하게 된다.

또 비정규직의 경우는 20만~100만원까지 반환을 받게되고 정규직은 20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 내외까지 반환받게 된다.

홈플러스 측은 지난달 26일 일부 승소에 대한 항소를 진행했다.

이에 홈플러스 노조는 "홈플러스가 최대한 시간을 끌어 노동자들을 지치게 만들고 나아가 소송을 포기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측은 "국내에만 200건이 넘는 통상 임금 소송이 계류 중이며 홈플러스도 이중 한건이다"며 "현재 1심은 일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상이하고 구체적인 법조항이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홈플러스 노조원 60여 명은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본사 앞에서 '노조간부 징계해고' 규탄 집회를 갖고 최형선 노조 경기본부장의 복귀를 촉구했다. /김성현 기자

아이파크몰 '면세점 선정 감사 이벤트'

현대산업개발(회장 정몽규)의 아이파크몰이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기념하는 고객 감사 행사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면세점 선정 고객 감사 대축제'에서는 '10% 상품권+10% 할인' 행사와 초특가 상품권, 사은선물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또 15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하는 특별 세일행사를 통해 잡화와 의류·아웃도어 용품 등을 할인 판매한다. 이 밖에 '우산 원플러스원(1+1) 상품전'과 '아웃도어 1만원 균일가전', '이월상품 80% 초특가전' 등의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김성현 기자



/오비맥주 제공

젊은 소비층 겨냥 '카스 비츠' 출시

오비, 노화 이미지 쇄신
프리미엄 맥주 선보여

오비맥주(대표 프레데이코 프레이레)가 파격적인 디자인과 맛의 프리미엄 맥주 '카스 비츠(Cass Beats)'를 23일 출시했다.

수입맥주의 공세 속에서도 젊은층을 공략해 노화된 이미지를 벗고 국내 맥주시장 1위 자리를 지키겠다는 전략이다. 오비맥주는 23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젊은 소비층을 겨냥한 프리미엄급 맥주 카스 비츠를 공개했다.

카스 비츠는 알코올 도수 5.8도로 평균 4.5~5도인 기존 맥주에 비해 알코올 함량이 높다. 하지만 특수 공법을 통해 진하고 쓴 풍미를 줄이고 부드럽고 깔끔한 목 넘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패키지도 눈에 띈다. 기존 갈색 톤의 맥주병 대신 강렬한 코발트블루 색상에 좌우 비대칭의 굴곡진 곡선형 라인의 패키지로 선보였다.

회사 측은 젊은 층이 열광하는 EDM(Electronic Dance Music) 등 비트 중심 음악의 역동성을 형상화하고 좌우 비대칭 곡선으로 그립감이 높였다고 설명했다. /정은미 기자

라면시장, 한여름 짜장 대전

농심 '짜왕' 인기몰이에
오뚜기 '진한짜장' 이어
팔도 '전통짜장'도 가세



농심 '짜왕' 오뚜기 '진짜장' 팔도 '팔도짜장면'

프리미엄 짜장라면 시장에 농심과 오뚜기에 이어 팔도까지 출사표를 던졌다.

농심의 짜왕이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판매금액 기준 2위에 오르자 팔도까지 프리미엄 짜장라면 시장에 뛰어들었다.

팔도는 '팔도짜장면'으로 프리미엄 짜장라면 시장에 진출한다.

팔도짜장면은 양파농축액을 넣은 면발과 춘장에 양파·감자·돼지고기 등 큼직한 건더기가 들어있는 액상 짜장소스를 사용해 진한 짜장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특히 원료 중 돼지고기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공동 기획해 국산 돼지고기 100%(한돈)를 사용했다. 가격은 1500원으로 짜왕과 같다.

최용민 팔도 마케팅팀장은 "팔도짜장면은 짜장 원물의 맛을 최대한 살린 제품이라 맛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며 "팔도비빔면과 팔도짜장면으로 팔도가 국물 없는 라면시장에서 강자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뚜기는 지난 20일 프리미엄 짜장라면 '진짜장'을 선보였다. 진짜장은 쫄깃한 중화면과 춘장 및 양파를 센 불에 볶아 만든 짜장 베이스에 돼지고기와 생강을 넣어 옛날 짜장의 맛을 재현했다.

액체 스프를 사용해 전통 짜장의 풍미를 살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가격은 프리미엄 짜장라면 중 가장 저렴한 1300원이다.

한편 지난 4월 출시된 농심 짜왕은 한 달 만에 100억원 어치(공장출고가격 기준)가 팔리며 라면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 기준 5월 라면 매출 순위에서 2위에 오르기도 했다.

농심은 짜왕 인기에 힘입어 같은 기간 국내 라면시장에서 1~5위를 독차지했다. 시장 점유율도 0.6%포인트 상승한 61.5%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국내 라면 시장 매출은 3.7% 감소한 반면 짜장라면은 짜왕의 선전 속에 12.5% 신장하며 나홀로 독주를 이어감에 따라 경쟁업체들이 앞 다퉈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아모레퍼시픽 '컨소시엄 러닝센터' 운영

아모레퍼시픽(대표 심상배)은 경기도 수원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전용 교육센터인 '컨소시엄 러닝센터'를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13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이래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화장품 제조와 물류 전반을 포괄하는 직무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김수정 기자 ksj0215@

'M매직쿠션' 5개월 만에 200만개 판매

에이블씨엔씨(대표 서영필)는 M 매직쿠션 출시 5개월 만에 200만 개 판매를 넘어섰다고 23일 밝혔다.



미샤는 지난 2월 2만~4만원 대인 시중 쿠션 제품보다 저렴한 'M 매직쿠션'을 6800원에 출시했다.

출시 초기 품절 사태가 벌어지는 등 인기에 힘입어 촉촉함을 강화한 'M 매직쿠션 모이스처'와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베티붑을 제품에 디자인한 'M 매직쿠션 베티붑 에디션'을 선보이기도 했다. /김수정 기자

中 저가 공습… 상반기 가구 수입액 최대

전체 수입량의 73% 차지
국내 소형 가구업체 타격

올해 상반기에 중국 저가 가구 수입이 급증하면서 가구 수입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구 수입액은 13억6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2.3% 증가했다.

가구 수입액은 2년 연속 두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반기 성장세로 볼 때 올 한해 가구 수입액은 지난해 수준을 뛰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 중량 역시 올 상반기 30만 8000톤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7.5% 급증했다. 이 역시 가구 수입량이 가장 많았던 2007년 상반기를 앞지르는 수치다.

가구류 수입은 중량 기준으로 2007년 최고치를 기록한 뒤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로 2012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하지만 2013년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서 벗어나고 생활 수준이 높아져 사무용·가정용 인테리어(실내장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량과 금액 기준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 19만6600톤 수입됐던 중국산 가구가 올해 상반기에는 20만톤이상 들어오며 전체 수입량의 72.9%를 차지했고 베트남산 3만8600t톤(12.5%)과 인도네시아산 8100톤(2.6%)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중국산을 비롯한 저가 제품이 늘어나면서 국내 대형 가구업체와 중국 가구업체 사이에 낀 국내 소형 가구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은미 기자

쿠쿠전자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 2관왕

쿠쿠전자(대표 구본학)는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9회 올해의 에너지위너상 시상식'에서 풀스테인리스 3.0 에코 배큠으로 제품·시스템부문 에너지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풀스테인리스 3.0 에코 배큠의 '진공보온'과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기능이 에너지효율성·절감능력, 에너지절약효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쿠쿠전자 측은 설명했다. 쿠쿠전자는 공기청정기도 '녹색기기부문 에너지위너상'을 차지하며 2개 부문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김수정 기자

'임신' 전지현, 주류광고 모델 유지

女 출산지원 장려 '롯데'
음주장면 제외 등 배려

롯데주류(대표 이재혁)가 맥주 클라우드의 전속 모델인 전지현의 임신을 축하하며 모델계약 지속을 23일 밝혔다.

전지현의 소속사 '문화창고'를 통해 임신 사실을 전달받은 롯데주류는 여성인력 채용 증대 및 출산과 육아 지원 시스템 개선 등을 적극 장려해온 그룹의 정책에 따라 전지현의 모델계약을 기존 계약의 변경 없이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 촬영할 클라우드 광고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 등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내용은 촬영 내용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촬영 일정 역시 전지현의 건강 상태와 스케줄에 따라 결정하는 등 최대한의 배려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전지현씨의 축복스러운 임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 최대한 전지현씨의 상황을 고려해 광고 촬영 등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안보공단, 장마철 감전 주의보

높은 습도에 인체저항 낮아져 감전사고 사망자 7·8월 집중

접지·누전차단기 설치 등 현장 안전수칙 준수 당부



지난해 8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작업장에서 건조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수리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돼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같은 달 전라북도 김제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가 훼손된 전선에 감전사고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장마와 집중호우 등 기상변화가 심한 여름철의 경우 더위로 노출되는 신체 부분이 많고 땀과 높은 습도로 인체저항이 낮아져 감전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특히 전기 기계기구 사용이 많은 산업현장의 경우 감전재해 위험이 높고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감전으로 인한 산업재해자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감전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27명) 중 50%이상(15명)이 7월과 8월에 발생했다.

연간 매월 1명 안팎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과 비교할 때 이 기간에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처럼 여름철 산업현장 감전사고 발생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영순)은 3대 안전수칙을 제시하고 준수를 당부했다. 공단이 제시한 산업현장 감전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은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전기기기 정비 시 전원차단' 이다.

모든 전기기기의 철제외함에는 접지를 실시해야 하며 이동형 전기기기는 누전차단기 설치, 전기기기의 수리보수 작업 시 반드시 전원차단 후 작업을 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안전보건자료실'을 통해 감전사고예방자료를 내려 받아 사업장에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포스터, 안전표지 등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사업장에서는 감전사고에 대비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요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사고 발생 시 인근병원에 대한 비상연락 체계 등을 갖춰 놓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고발생 시에는 우선적으로 전원을 차단하고 나무와 같은 절연체를 이용해 감전된 도체로부터 사고자를 분리하고 응급조치를 실시해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

공단 관계자는 "여름 장마철 감전사고의 대부분은 작업 전 안전점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사업장에서는 감전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을 바탕으로 사전 안전점검에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설측교정 까다롭지만 치료기간 차이 없어

닥터 Q&A

Q. 치아교정할 때 설측교정이 순측교정 보다 오래 걸리나요?



송정우 원장 (센트럴치과 서울시청점)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외래교수
대한치과교정학회 정회원
대한소아치과학회 정회원
대한심미치과학회 정회원
RWISO(Roth Willams International Society of Orthodontists) 정회원
– Roth Williams course 수료 / RW KSO 정회원

A.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치아안쪽의 해부학적 형태에 기인한 요인으로 장치의 부착이 제한되고 교정력을 전달하기 위한 와이어 적용의 어려움 때문에 바깥으로 하는 장치의 치료보다 진행이 늦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설측교정을 위한 교정장치의 크기가 작아지는 개선이 이뤄졌고 교정력을 전달하기 위한 와이어의 물성도 설측에 최적화 되어 치료기간이나 효율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설측교정이 순측교정에 비해 조금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설측교정은 치아 안쪽에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교정장치를 부착하는 위치선정, 치아안쪽 상태 등 시야확보에 제한적입니다. 또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치아상태도 제각각으로 겉에서 보이는 환자의 치아 상태와 달리 치아 안쪽의 단면은 울퉁불퉁하고 각 치아마다 정도가 달라 치아교정장치를 부착하는 위치 등에 차별을 두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치아교정치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환자들이 설측교정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심미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순측교정은 교정장치가 외부로 보이며 장치로 인해 입 부분이 더 튀어나와 보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설측교정은 치아 안쪽에 장치를 부착하기 때문에 장치가 외부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심미성을 고려한다면 설측교정 외에 치아 윗쪽은 설측교정으로 아래 치아는 순측교정으로 진행하는 콤비교정도 좋습니다.



순측교정 치아 이미지(왼쪽)와 설측교정 치아 이미지.

일반적으로 말하거나 웃을 때 윗치아는 그대로 드러나는 반면 아래치아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동을 예상한 치아모양에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로 치아교정틀을 만들어 착용하는 투명교정도 심미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치아교정 시 심미성만을 고려해 무조건 설측교정이나 투명교정을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환자의 치아 상태에 따라 치료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 돌출입이나 무턱, 거미스마일처럼 골격성돌출입을 가진 환자들은 설측교정 방식으로 진행하는 '킬본(KILBON)'처럼 돌출입치료에 특화된 치아교정법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정리=최치선 기자 chisunti@



글로벌원정대 5기, 100일 대장정 마침표

롯데리아

최종 3팀에 3000만원 지원

롯데리아(대표 노일식)는 지난 22일 서울 잠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관에서 대학생 마케터 육성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롯데리아 글로벌 원정대' 5기의 수료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롯데리아 글로벌원정대 5기는 지난 4월 1일부터 모집해 1차 200팀 선발 이후 물물교환, 캠퍼스 미션, 마케팅 스쿨 등의 서바이벌 미션을 통해 10팀(30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10팀은 지난달 29일 베트남 원정 프로그램에 참석해 롯데리아 베트남 현지 서포터즈와의 공동으로 프로모션을 운영했다. 베트남 '밥퍼' 단체와 함께 무료 배식 활동을 하며 현지에서의 롯데리아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롯데리아는 글로벌원정대가 국내 활동 미션과 해외 현지 사회공헌 활동 경험을 토대로 발표한 사회공헌 마케팅 기획안 중 '홍익버거', '롯또', '트리플 골드' 팀 등 3팀을 선발했다. 이들이 팀별 희망 국가를 선택해 해외 원정을 떠날 수 있도록 팀별로 10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이번 글로벌원정대 5기 대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획들을 통해 국내외 롯데리아에 대한 다양한 외식 브랜드들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마운틴듀와 짜릿한 머드축제 즐기세요

롯데칠성음료

인간볼링 등 공연·게임 다채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의 글로벌 탄산음료 브랜드 마운틴듀가 24~26일 대천해수욕장 보령머드축제가 열리는 머드광장에서 이벤트를 벌인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여름 피서 시즌을 맞아 '짜릿함을 원해? 두 더 듀(Do the Dew)!'라는 주제로 마운틴듀만의 도전적이고 짜릿한 브랜드 이미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마운틴듀는 이번 이벤트에서 스케이트보드 프로팀의 화려한 데모쇼와 초보자를 위한 스케이트보드 스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온 몸으로 부딪히는 슬라이딩 게임 '마운틴듀 인간 볼링', 시원한 물폭탄이 쏟아지는 '마운틴듀 워터밤' 등의 다양한 게임도 준비했다.

25일에는 가수 박재범 등이 참가하는 '마운틴듀 힙합 콘서트'가 보령머드축제 특설무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마운틴듀는 스케이트보드 전국투어 로드쇼를 진행한다.

/정은미 기자

방송대, APEC에 방송교육 노하우 전수

이러닝 연수단 대학본부 방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제교육협력원 주최 이러닝 연수단이 23일 오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본부(서울시 종로구 대학로)를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

브루나이,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태지역 8개 국가 교육부와 국립대 소속 교육·행정 전문가 13명으로 이뤄진 이번 연수단은 국내 유일 국립원격대학인 방송대의 원격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했다.

연수단은 방송대 콘텐츠 탐방과 디지털미디어센터(DMC) 시설 견학 등의 순서로 방송대 방문 일정을 마쳤다.

이동국 총장직무대리는 "아·태 지역의 여러 국가 관계자가 방문하는 만큼 43년의 노하우를 가진 방송대의 선진 원격교육 환경을 충분히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APEC 이러닝 연수단은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디지털 미디어 교육 컨텐츠와 원격 교육 관련 다양한 현장을 탐방할 예정이다. /최치선 기자

star bag



사도·영조, 첫 스틸 공개

송강호, 유아인이 주연을 맡은 영화 '사도'가 스틸을 첫 공개했다. '사도'는 어떤 순간에도 왕이어야 했던 아버지 영조(송강호)와 단 한 순간이라도 아들이고 싶었던 세자 사도(유아인)의 비극적인 가족사를 그린 영화다. 오는 9월 개봉 예정이다.

팩션 사극 속 스님 변신



배우 **한상진**이 SBS 새 월화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출연을 확정했다. 한상진은 극중에서 거대한 비리 사찰인 비국사의 주지스님 적룡 역을 맡았다.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팩션 사극 장르인 '육룡이 나르샤'는 오는 10월 첫 방송된다.

영화·드라마 종횡무진



배우 **김대명**이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종횡무진하며 활약을 펼친다. 김대명은 최근 심리 스릴러 영화 '해빙'과 KBS2 드라마 스페셜 2015 시즌2 작품인 '붉은 달'에 연이어 캐스팅됐다. 기존의 인간적인 이미지를 벗고 서늘한 캐릭터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국 투어 라이브 음반으로



서태지 밴드의 전국 투어 라이브 음반인 '콰이어트 나이트(Quiet Night)'가 다음달 7일 발매된다. 이번 라이브 앨범에는 서태지의 음악 커리어 전반을 아우르는 총 29곡을 2장의 CD에 담았다. 23일부터 온라인 음반 판매점을 통해 예약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씨스타 다솜의 가상 며느리



배우 **고두심**이 KBS2 새 월화드라마 '별난 며느리'를 통해 걸그룹 씨스타 멤버 다솜의 가상 며느리가 된다. '별난 며느리'는 며느리 체험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소재로 삼은 코믹 가족 드라마다. 현재 방영 중인 '너를 기억해' 후속으로 오는 8월 방송될 예정이다.

'1박2일' **김준호**

개그맨 김준호(41)는 2013년 KBS연예대상을 수상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의 앞날은 밝아보였다. KBS 간판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이하 개콘)와 '1박2일' 시즌3의 고정멤버에 이어 '인간의 조건' '두 남자의 특급 찬양' 등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맹활약했다. 또 김준현·김지민·이국주 등 후배 개그맨들을 데리고 코코엔터테인먼트라는 기획사를 설립해 공동대표를 맡았다. 후배들이 방송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회사의 가치도 높아갔다.

"광대니까 다시 광대 일에 충실해야죠"



오르막은 거기서 끝이었다. 지난해 12월 전 공동대표 김모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하면서 몇 십억원의 부채를 남겼다. 결국 1월 24일 김준호는 회사 경영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해 폐업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횡령인의 부인으로부터 협박도 받았고 배임혐의로 업무대행자로부터 피소됐다.

'코코사태' 무지했던 죄… 결국 내 잘못
'1박2일' 차태현 등 멤버들 배려 큰 힘

3년 연속 '부코페' 집행 위원장 맡아
한국코미디수출 무역센터로 만들 것

"지난해 8월 후배들과 재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회사에 돈이 전혀 없더군요. 그 때 횡령에 대해 알게 됐어요. 급한 김에 2대 주주에게 돈을 빌렸죠. 후배들 재계약금이었는데 전 대표가 그 돈마저 손을 댄거죠. 알고보니 이전에 횡령을 저질러 집행유예 상태였던 사람이었어요. 기소중지 기간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잡기는 힘들 것 같아요."

김준호는 이 일로 많은 것을 잃었다. 돈과 명예, 그리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까지 떠나보내야 했다.

"미지급금이 꽤 많아요. 후배들 피해가 크죠. 미안할 따름이에요. 평생 갚아야 할 빚이 생긴 셈입니다. 이해한다고는 했지만 고통스러웠겠죠. 지금은 다행히 다들 소속사를 찾았어요."

성공한 개그맨인 김준호는 사업가로서는 자질이 부족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지였다.

"당시에는 억울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결국 제 잘못이었어요. 내가 주주고 대표인데 후배들을 데리고 왔으면 회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했는데 잘 몰랐고 방관한 책임이 있죠. 억울하다고 사방에 읍소했다가 오히려 비난을 받았죠.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때 깨달은 건 '연예인은 말을 많이 하면 안되는구나'였어요."(웃음)

사업의 쓴맛을 본 김준호가 마음을 가다듬는데 도움을 준 것은 '1박2일' 멤버들이었다.

"(차)태현이가 많이 힘을 줬어요. 덕분에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광대니까 광대로서 충실히 광대 일을 해야죠."

김준호는 데뷔 20년차다. 99년부터 시작한 '개콘'에 1기로 합류해 지금까지도 출연하고 있다. 여전히 개그를 짜고 무대에 오른다. 그 배경에는 코미디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연결고리로서의 책임감이 있었다.

"지금 '개콘'이 위기인 것 같아요. 항상 스타와 유행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매너리즘에 빠진 느낌입니다. 요샌 후배들과 매주 20~30개의 코너를 준비하죠. 저는 이주일·심형래·김병조 선배님과도 코미디를 해봤고, 지금은 20대들과 코미디를 하죠.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저 밖에 없어요."

김준호는 실패를 딛고 다시 코미디에 집중하기로 했다. 8월 말에 열리는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이하 부코페)에서 3년 연속으로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조직위원장님이 사건 터지자마자 오히려 절 응원해줬어요. 부코페랑 상관 없는 일이고 또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믿어주신거죠. 제 욕심은 부코페가 한국 코미디 콘텐츠를 수출할 수 있는 무역센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코미디에 자신이 있으니까요. 이번 사태로 부코페는 전문가들과 회계부터 검토하고 있어요. 앞으로 제 회사를 다시 한다고 해도 가장 먼저 회계부터 신경 쓸 겁니다."

/하희철 기자 bbuheng@metroseoul.co.kr

전시로 보는 안토니 가우디의 예술세계

31일부터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위대한 건축가이자 예술가인 안토니 가우디(1852~1926)를 조망하는 '바르셀로나를 꿈꾸다. 안토니 가우디' 전이 7월 31일~11월 1일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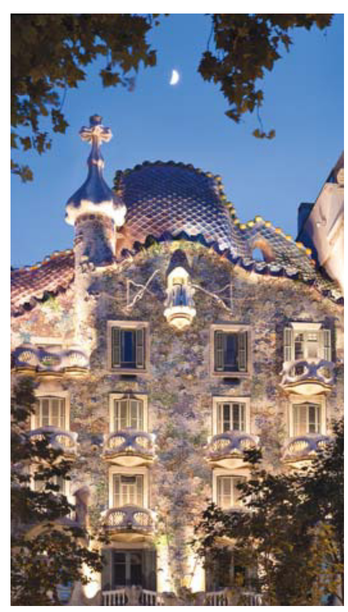
건축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 올린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거장 안토니 가우디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이번 전시는 탁월한 미적 감각과 독창적 양식으로 세계 건축과 예술, 디자인분야의 새로운 장을 연 가우디의 건축 도면, 디자인 도면, 스케치, 캐스트, 가구, 장식, 당대의 기록 사진, 멀티미디어, 건축물 모형 등 200여 점이 선보인다.

특히 가우디의 미발표 작품들과 개인적인 기록들이 이번 전시에서 최초로 공개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가우디의 7개의 건축물과 관련된 도면과 스케치도 만날 수 있다.

가우디의 대표적인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한 도시의 지형적, 문화적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오늘날 바르셀로나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이 성당은 여타 성당과 확연히 구분되는 독특한 형태와 장엄한 스케일, 혁신적인 구조, 섬세한 장식 등이 특징이다. 그는 사후에도 지속적인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많은 도면과 모형을 남겼다.

유네스코는 1984년 가우디의 건축물이 19세기 건축의 발전에 미친 영향과 그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인정해 카사 밀라와 구엘 저택, 구엘 공원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다. 이어 2005년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탄생의 파사드와 지하 예배당, 카사 비센스, 콜로니아 구엘 지하 경당, 카사 바트요 등 4개 작품을 추가로 등재했다. 문의 02) 837-6611

/김민준 기자 mjkim@



안토니 가우디의 작품.


channel
THE
맛있는
One샷
푸드트럭을 타고 펼치는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요리배틀!
매주 목요일 밤 11시 E채널
t.cast
E channel SCREEN DRAMAcube FashionN CINEf CHAMP FOX FOX life FX

위대한 예술가에 대한 진심어린 헌정

film review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비치 보이스 멤버 브라이언 윌슨 자전적 이야기
폴 다노·존 쿠삭 2인 1역 연기…예술가 고뇌에 방점



■러브 앤 머시

예술가에게 창작의 고뇌는 피할 수 없는 짐과도 같다. 비틀즈, 롤링 스톤즈 등과 함께 60년대 팝 역사를 이끌었던 밴드 비치 보이스의 브라이언 윌슨도 그런 강박을 피할 수 없었다. 귓가를 맴도는 악상을 음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브라이언 윌슨을 괴롭게 했다.

그 이면에는 폭력적이었던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가 있었다. 그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신과 의사인 유진 랜디 박사를 만났지만, 그의 강압적인 치료 방식이 오히려 브라이언 윌슨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외롭고 겁나고 두렵다." 브라이언 윌슨은 그렇게 불운한 인생으로 팝 역사에서 사라질 뻔 했다.

'러브 앤 머시'는 비치 보이스 멤버 브라이언 윌슨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배우 폴 다노와 존 쿠삭이 각각 60년대와 80년대의 브라이언 윌슨으로 2인 1역 연기를 펼쳤다.

비치 보이스는 '펫 사운즈(Pet Sounds)'와 같은 명반을 팝 역사에 남긴 전설적인 밴드다. 그러나 국내에는 '서핑 USA(Surfin' USA)' '코코모(Kokomo)' 등의 히트곡으로만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쾌한 분위기의 음악영화를 기대한다면 다소 실망할 수도 있다. '러브 앤 머시'의 방점은 비치 보이스의 음악보다는 브라이언 윌슨의 고뇌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다소 무거운 주제인 만큼 영화의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정적인 분위기를 띈다. 브라이언 윌슨이 겪었던 내면의 고통을 영상과 사운드로 구현한 은유적인 장면들도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그러나 비치 보이스와 브라이언 윌슨의 팬, 혹은 60년대 팝 음악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이라면 영화 속 이야기가 무척 흥미로울 것이다. 명반 '펫 사운즈'를 둘러싼 에피소드, 그리고 끝내 공개되지 못한 채 저주 받은 걸작으로 스튜디오에 남아 있던 '스마일(SMiLE)' 앨범의 제작 과정 등이 자세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러브 앤 머시'의 마지막은 노년이 된 브라이언 윌슨이 영화 제목과 같은 노래 '러브 앤 머시(Love & Mercy)'를 부르는 장면을 담고 있다. 브라이언 윌슨이 1988년에 발표한 이 노래는 그의 재기를 알리는 첫 시발점이 된 곡이다. 그렇게 영화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는 위대한 예술가를 향해 진심어린 헌정을 보낸다. 15세 이상 관람가. 7월 30일 개봉.

TV 하이라이트

◆ MBC '나혼자산다'

금요일 오후 11시 15분

결혼 위해 작별하는 혼자남



원년 멤버인 김광규는 무지개 회원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눈다. 작별 인사를 고하기 위해 무지개 회원들을 작년 야유회 장소로 불러 모은 김광규는 더 이상 혼자 살지 않기 위해 무지개 모임을 떠나게 됐다고 고백한다. 무지개 회원들은 결혼을 기원하는 작별 선물을 건네 김광규의 눈시울을 붉힌다. 올해로 49살을 맞은 김광규는 빨랫줄에 걸린 티셔츠부터 집에 걸린 액자까지 무지개 모임의 흔적이 가득한 집에서 지난 추억을 되새겨본다.

/정리=하희철 기자 bbuheng@

◆ MBC '세바퀴-친구찾기'

금요일 오후 10시

홍진호는 화제가 된 '공식썸녀' 레이디제인과의 뽀뽀 사건의 자세한 상황을 공개한다. 하니가 홍진호의 매력을 칭찬하자 홍진호는 이번엔 하니에게 추파를 던진다.



◆ KBS2 '오렌지 마말레이드'

금요일 오후 10시 50

재민은 마리와 함께했던 지난 과거에 대한 기억을 되찾는다. 이 과정에서 300년 전의 일들까지 모두 떠올리게 된다. 재민은 되찾은 기억을 가지고 마리를 찾아간다.



◆ JTBC '마녀사냥'

금요일 오후 11시

AOA 지민은 전 남자친구와의 추억을 랩 가사에 담은 적이 있고 AOA의 지난 앨범에 그대로 실렸다고 고백한다. 전 남자친구와의 연애 에피소드도 과감하게 털어놓는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5일 (토)

KBS1	KBS2	MBC	SBS	EBS1	JTBC
12시 10 국악한마당 15시 15 명견만리 (재) 16시 10 징비록 (46회) (재) 18시 00 동행 19시 10 다큐 공감 20시 00 광복70년 국민대합창 나는 대한민국 21시 40 징비록 (47회) 22시 30 특선 앙코르 백두산	11시 20 나를 돌아봐 (1회) (재) 12시 40 개그 콘서트 (재) 14시 15 슈퍼맨이 돌아왔다 17시 55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19시 55 파랑새의 집 (45회) 21시 15 연예가 중계 22시 25 청춘FC 헝그리 일레븐 (3회) 23시 30 인간의 조건-도시농부	12시 10 무한도전 스페셜 15시 50 쇼! 음악중심 16시 55 우리 결혼했어요 18시 25 무한도전 (438회) 20시 45 여자를 울려 (29회) 22시 00 여왕의 꽃 (39회) 23시 15 마이 리틀 텔레비전 0시 40 라디오스타 스페셜	14시 25 런닝맨 (재) 15시 50 아빠를 부탁해 (재) 17시 00 오!마이 베이비 18시 25 놀라운대회 스타!킹 20시 45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22시 00 너를 사랑한 시간 (9회) 23시 10 그것이 알고 싶다 24시 10 심야식당 (7·8회)	12시 00 최고의 요리비결 <최진흔의 맛있는 기술> (종합1~5) (재) 15시 50 청춘! 세계도전기 (재) 17시 50 장학퀴즈 (963회) 18시 40 한국기행 (종합 1~2) (재) 20시 15 다문화 고부 열전 (재) 21시 0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종합 1~3) (재) 22시 35 장수의 비밀 (재) 23시 05 세계의 명화 <프랑스 중위의 연인>	10시 15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스페셜 (53회) 11시 30 비정상회담 (55회) (재) 14시 35 냉장고를 부탁해 (36·15회) (재) 18시 30 유자식상팔자 스페셜 (111회) 19시 40 JTBC 뉴스룸 20시 30 라스트 (2회) 21시 45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5회) 23시 00 라스트 (1·2회) (재)

26일 (일)

KBS1	KBS2	MBC	SBS	EBS1	JTBC
12시 10 전국노래자랑 13시 20 스카우트 2 (11회) 14시 10 KBS 슈퍼클래식 16시 10 징비록 (47회) (재) 18시 00 황금의 펜타곤 시즌3 21시 40 징비록 (48회) 22시 30 역사저널 그날 24시 00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 2.0	13시 15 청춘FC 헝그리 일레븐 (3회) (재) 14시 20 파랑새의 집 (재) 16시 50 해피선데이 (551회) 19시 55 파랑새의 집 (46회) 21시 20 개그 콘서트 (806회) 22시 55 다큐멘터리 3일 23시 55 어송포유 (2회) 0시 55 이웃집 찰스 (재)	12시 10 출발! 비디오 여행 13시 15 화정 (29·30회) (재) 15시 45 섹션 TV 연예통신 16시 50 일밤 <복면가왕/진짜 사나이> 20시 45 여자를 울려 (30회) 22시 00 여왕의 꽃 (40회) 23시 15 시사매거진 2580 0시 05 세바퀴 스페셜	12시 10 너를 사랑한 시간 (9회) (재) 13시 15 가면 (재) 15시 40 SBS 인기가요 16시 50 일요일이 좋다 <아빠를 부탁해/런닝맨> 20시 45 웃음을 찾는 사람들 22시 00 너를 사랑한 시간 (10회) 23시 10 SBS 스페셜	12시 30 극한 직업 (재) 13시 20 명의 (재) 14시 15 일요시네마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 16시 45 세계의 눈 17시 35 세계 테마 기행 (종합 1~4) (재) 20시 15 EBS 다큐 프라임 (종합 1~3) (재) 23시 00 한국영화특선 <아홉살 인생>	13시 20 썰전 (125회) (재) 16시 1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5회) (재) 17시 15 유자식상팔자 (111회) (재) 19시 40 JTBC 뉴스룸 20시 40 닥터의 승부 (185회) 21시 45 김제동의 톡투유 (13회) 23시 00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9회)

'가짜 돈벼락' 맞은 블라터 FIFA 회장

스포츠 주간 해프닝

'비리 스캔들'에 연루돼 사임을 표명한 제프 블라터 국제축구연맹(FIFA)회장이 한 코미디언으로부터 가짜 돈벼락을 맞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블라터 회장은 20일 스위스 취리히의 FIFA 본부에서는 열린 집행위원회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국의 코미디언 사이먼 브로드킨(38)으로부터 가짜 지폐뭉치 세례를 맞았다. 브로드킨은 블라터 회장 앞 책상에 가짜 돈을 놓고는 "2026년 북한 월드컵 대회 유치를 위한 것이다. 나는 북한 축구 대사로서 FIFA와 2026년 북한 월드컵 유치 협정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고 블라터를 비꼬며 가짜 지폐뭉치를 던졌다. FIFA 부패의 몸통으로 지목된 블라터 회장에 항의하는 퍼포먼스였다. 블라터 회장은 갑자기 쏟아진 돈벼락에 몸을 사렸다.

속 시원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브로드킨은 그러나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FIFA 본부에 무단침입한 죄로 기소됐다.



제프 블라터 FIFA회장이 기자회견 도중 가짜 돈벼락을 맞고 당황하고 있다.



박경수가 홈런을 친 줄 알고 3루까지 갔다가 2루타가 선언되자 아쉬워하고 있다.



김호남이 골을 성공시킨 뒤 상대팀 감독인 슈틸리케 감독에게 안기고 있다.

철망이 훔쳐간 홈런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야속한 철망 때문에 홈런을 빼앗기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다.

18일 수원 KT 위즈 홈구장에서 열린 2015 KBO 올스타전에서 KT의 박경수는 외야수 이대형, 투수 장시환·정대현과 함께 드림 올스타(삼성·SK·두산·롯데·KT)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팬 투표로 선정되는 올스타 베스트 12에는 들지 못했지만 '구단 첫 올스타'라는 특별한 의미의 출전이었다.

이날 6-2로 앞선 9회초 2사 타석에 들어선 박경수는 나눔 올스타의 투수 권혁(한화)의 6구째를 노려 우측 펜스로 뻗는 타구를 쳐냈다. 최근 페이스가 좋았던 박경수는 홈런이라는 생각에 베이스를 돌았지만, 공은 철망을 넘기지 못하고 그대로 박히고 말았다. 약간의 차이로 펜스 위 철망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인정 2루타가 됐다. 공이 넘어가지 못한 것을 확인한 박경수는 세리머니까지 마친 상황에서 다시 2루로 돌아와야 했다.

경기 도중 국대 청탁

프로축구 K리그 올스타전에서 울리 슈틸리케(60·독일) 국가대표 감독에게 국대 청탁을 한 선수가 나타났다.

당돌한 행동의 주인공은 광주FC의 공격수 김호남(26)이다. 그는 17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하나은행 K리그 올스타전에서 팀 최강희의 공격수로 나서 2-2로 맞선 후반 18분 오른발 인사이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그러나 골을 기록한 김호남은 팀 동료와 최강희 감독을 외면했다. 그가 향한 곳은 적장인 슈틸리케 감독이 앉아 있는 상대팀 벤치였다. 슈틸리케 감독에게 달려간 김호남은 포옹을 한 뒤 악수까지 건넸다. 대표팀에 뽑아달라는 '아부 세리머니'였다. 슈틸리케 감독은 그의 넉살에 웃음을 터뜨렸지만 사흘 뒤 2015 동아시아연맹(EAFF) 축구선수권대회에서 김호남을 선발하지는 않았다.

/하희철 기자 bbuheng@metroseoul.co.kr

강정호, 4경기 연속 멀티히트

추신수도 1안타 1타점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와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사진)가 쾌조의 컨디션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의 쿠어스 필드에서 벌어진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7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5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34(320타수 75안타)로 약간 하락했지만 시즌 타점은 43개로 늘었다.

전날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한 추신수는 첫 타석에서 날카로운 적시타로 포문을 열었다. 3-0으로 앞서간 1회 2사 2루에서 로키스 왼손 선발 투수 호르헤 데 라로사의 몸쪽 공을 쳐내 우익수 앞으로 굴러가는 총알 같은 타구로 1타점을 올렸다.

텍사스는 9회 1사 만루에서 터진 엘비스 안드루스의 2타점 좌전 적시타에 힘입어 10-8 승리를 거뒀다.

강정호는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원정경기에 5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장해 4타수 2안타를 때리며 4경기 연속 멀티 히트를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82에서 0.286(245타수 70안타)으로 올랐다.

강정호는 2회초 무사 1루에 첫 타석에 나서 상대 우완 선발 에딘손 볼케스의 초구 싱커(약 153㎞)를 깨끗한 중전 안타로 연결했다. 4회초에도 무사 1루에서 볼케스의 3구째 체인지업을 좌전 안타로 쳐냈다. 하지만 피츠버그는 캔자스시티의 7회말 마이크 무스타커스에게 3점 홈런을 맞아 1-5로 패했다. /하희철 기자



FIFA 대권 유력후보들 첫 회동

플라티니-알리, 대화내용은 함구

국제축구연맹(FIFA) 비리 스캔들로 제프 블라터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난 가운데 유력한 '대권 후보'로 손꼽히는 미셸 플라티니(사진)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과 알리 빈 알 후세인 요르단 왕자가 첫 회동에 나섰다.

AP통신은 23일(한국시간) "플라티니 UEFA 회장과 알리 요르단 왕자가 블라터 회장이 회장직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처음 만났다"며 "둘의 회동은 플라티니 회장이 휴가를 보내는 프랑스 남부 자택에서 22일 이뤄졌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 두 사람의 대변인들은 함구했다"고 보도했다.

알리 왕자는 지난 5월 30일 치러진 FIFA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1차 투표에서 블라터 회장에 73-133으로 밀린 뒤 2차 투표를 앞두고 사퇴했다. 알리 왕자는 선거 운동 당시 플라티니 UEFA 회장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FIFA 고위 간부들이 스위스 당국과 미국연방수사국(FBI)에 체포당하자 블라터 회장은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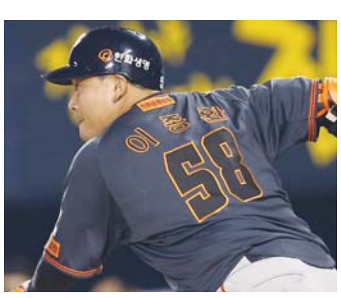
결국 플라티니 회장과 알리 왕자는 내년 2월 치러질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과 함께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군을 이루게 됐다.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플라티니 회장과 알리 왕자의 회동은 '후보 단일화'를 위한 시도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지난 5월 회장 선거에서 알리 왕자는 플라티니 회장의 지원을 받았지만 정책에서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게 AP통신의 설명이다. AP통신은 "플라티니 회장은 블라터 회장이 주장한 '빠른 개혁'을 위한 데스크 포스 결성에 찬성하고 있지만 알리 왕자는 테스크 포스를 통한 단기 개혁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희철 기자



한화 이종환, 오른 발목 염좌 진단

1개월 이상 전력 제외



한화 이글스의 5번타자로 맹활약 중이던 이종환(29·사진)이 오른 발목 인대 염좌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한화는 "이종환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오른 발목 인대 염좌 진단을 받았다"며 "3~4주 재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종환은 22일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 경기에서 8회초 3루수 키를 넘어가는 안타를 치고 나간 뒤 상대 투수 장시환의 견제 때 오른 발목을 다쳤다.

5월 6일 트레이드로 KIA 타이거즈에서 한화로 옮긴 이종환은 7월부터 '대타' 꼬리표를 떼고 한화의 5번타자로 자리 잡았다. 21일 KT전에서 결승타를 치는 등 4번타자 김태균의 뒤를 받치며 중심 타선에 힘을 실었다. 이종환의 이탈은 한화에 큰 손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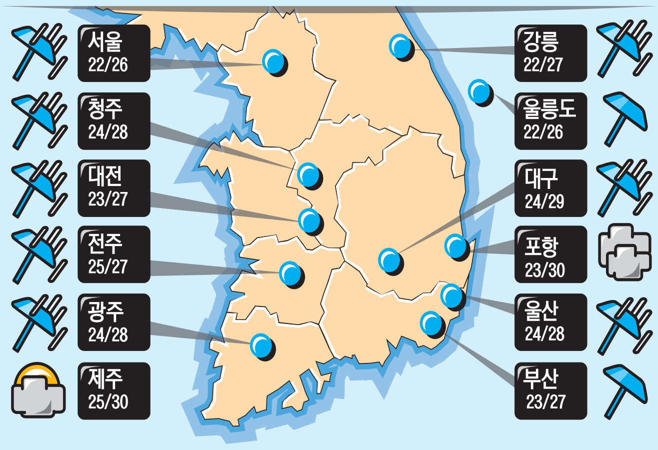
이종환의 공백은 2군에서 타격감을 조율 중인 김경언이 대신한다.

/김민준 기자 mjkim@

날씨

7/24 금 일출시각 05:29 일몰시각 19:4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1				7	
	5			7				
9	7					2	4	8
			6		1			2
5		4				1		7
2			8		7			
8	9	7					6	4
				6			3	
	3				9			1

6	9	3					7	
		8		2	9		3	
	5					6	4	
4				7	5			
			1	9	4			
			8	6				3
	8	9					2	
	1		2	8		9		
	6					3	8	1

스도쿠 정답

4	2	6	1	9	8	3	7	5
3	5	8	2	7	4	9	1	6
9	7	1	5	3	6	2	4	8
7	8	3	6	5	1	4	9	2
5	6	4	9	2	3	1	8	7
2	1	9	8	4	7	6	5	3
8	9	7	3	1	2	5	6	4
1	4	2	7	6	5	8	3	9
6	3	5	4	8	9	7	2	1

6	9	3	5	4	1	2	7	8
7	4	8	6	2	9	1	3	5
1	5	2	7	3	8	6	4	9
4	2	1	3	7	5	8	9	6
8	3	6	1	9	4	7	5	2
9	7	5	8	6	2	4	1	3
3	8	9	4	1	6	5	2	7
5	1	7	2	8	3	9	6	4
2	6	4	9	5	7	3	8	1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Owner Management Lee Jae Yong vs Special Management Tim Cook

<오너경영 이재용 vs전문경영 팀 쿡>

Apple is showing no sign of losing its popularity in the global in the IT market. Samsung electronics, which was thought to be the competition, seems to be laying its tail down.

Especially, the gap between the i-phone is getting bigger as the promoted phone in Samsung had shown no progress of winning consumers selection.

For this reason, spectators say that it is time that Lee Jae Yong, the vice president of Samsung electronics, showed his management ability. Samsung electronics is planning on launching new flagship smart phones on the third quarter.



21일 오전 경북 구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China, which has risen to be the world's largest smart phone market, will be the determining factor.

/파고다어학원 Chris Kim(김윤관) 강사

글로벌 정보기술(IT) 시장에서 애플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애플의 '대항마'로 꼽혔던 삼성전자는 위상이 한풀 꺾인 모습이다. 특히 전략 스마트폰의 부진이 거듭되면서 애플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 일부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능력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3분기에 나란히 플래그십 스마트폰 신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에서의 승부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PAGODA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미용실 개업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몸 고되고 경제적 손실… 취업하시길

비유티플 여자 62년 12월 25일 양력 16시

Q 선생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하철 출입구에 놓인 메트로 신문을 보면서 '사주 속으로'를 재미있게 보고 있는 독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메트로 신문의 장점은 보통 일간지에 실린 잡다한 내용보다는 중요하고 관심 있는 기사를 함축해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사주 속으로' 내용을 보고 저의 장래가 궁금하여 상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62년생인 제가 젊었을 때는 유아원에서 보모로 생활해 왔고 그 후 미장원에서 종업원 생활을 오래 해오다가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배운 것이 미용원 일이라 개업을 하려는데 제가 주인 노릇을 잘 해 낼 수 있을 까요?

A 음력 11월29일 생으로 자월(子月) 유일(酉日)에 태어났습니다. 자(子)는 자연의 물상에서 제비로 표현됩니다. 제비는 철새인데 몸집이 작아도 강남을 가니 자(子)의 본주(本主)는 견문이 넓고 박식함을 상징합니다. 제비는 벌레를 잘 잡으므로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나지요. 현대에는 콘크리트지붕 아래 어렵사리 연소(燕巢)를 마련해 새끼를 위해 먹이를 나르느라 눈코 뜰 새 없지만 부지런히 키워 다시 강남으로 돌아갈 생각에 마음이 바쁩니다. 이것은 곧 현조(玄鳥)의 창조력과 고단한 삶을 암시합니다. 가게가 크거나 작거나 주인인 사장노릇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겠으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하고 운에서 재물이 들어와야 잘 될 수 있습니다. 의욕만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절지(絶地)에 있으니 미장원을 개업하는 것은 언급했듯이 고단함이 연결되고 손실이 따릅니다. 연(燕)은 향연과 연회를 뜻하니 사람을 모아 먹이고 잔치를 벌이기를 즐깁니다. 제비는 사람이 집을 지으면 제 집도 생겼다하여 기뻐하는데 남이 집을 지었을 때 마음으로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을 연하(燕賀)라고 하지요. 귀하도 베풀고 베풀다가 등이 휠 정도가 될 것입니다. 주변 환경은 늘 바쁘게 돌아가지만 정작 지출이 과다하여 주름만 깊어 갈 터 팔자 본주에 자(子)나 유(酉)가 들면 대개 날씬하고 용모가 아름다운데 그 또한 시들어가니 많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아 금전적인 궁핍은 없으니 취미와 특성에 맞는 분야의 직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세요. 보편적인 알바나 비정규직의 신분을 떠나 미용 업에 좀 더 전문인이 되어 지금보다 더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하는 즐거움을 찾도록 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7월 24일 (음 6월 9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마음을 비우고 기도를 올려 보도록 하세요. **60년생**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72년생**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84년생** 여러 사람과 상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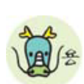
49년생 반드시 성취하게 됩니다. **61년생** 계획하는 일마다 대성을 거둡니다. **73년생** 귀하의 능력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85년생** 잔병치레가 많을 때 입니다.



50년생 주위 사람이 자기를 시기합니다. **62년생** 수술하면 암종류이고 상복수 있겠습니다. **74년생** 부모님께 문안 전화하도록 하세요. **86년생** 이성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51년생 용기 있는 자만이 이룰 수 있을것입니다. **63년생** 모든 조건이 좋으니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75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87년생** 말 조심 몸 조심하세요.



52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겠습니다. **64년생**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76년생** 이 고비만 넘기면 만사가 좋아집니다. **88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자주 가지세요.



53년생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세요. **65년생** 남의 말에 귀 기울일 때 입니다. **77년생** 더 가지려 말고 현재 것을 잘 간수하세요. **89년생** 배우자의 건강에 신경을 쓰세요.



54년생 왠지 불길한 징조가 있습니다. **66년생** 조용히 근신하세요. **78년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습니다. **90년생** 동쪽으로 가세요.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55년생 여행은 될 수 있으면 떠나지 마세요. **67년생** 긍정적인 사고로 소원을 염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79년생** 재물이 쌓일 것입니다. **91년생** 음식을 삼가 해야 합니다.



56년생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것입니다. **68년생**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80년생** 마음이 답답해지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92년생** 남을 돕는 것이 길합니다.



57년생 금전운은 길하나 지출이 있게 됩니다. **69년생**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81년생** 누명이나 사기를 조심하세요. **93년생**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입니다.



58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70년생** 작은 도움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82년생** 좋은 운이 돌아오니 순리대로 처신하세요. **94년생** 심고 가꾼 곡식이 알찬 열매를 맺습니다.



59년생 심기가 편치 못합니다. **71년생** 큰 업체와의 계약이 성사됩니다. **83년생**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마세요. **95년생**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다시한번 돌아보세요.

社說

정몽준, 갈 곳은 어디인가

정몽준 전 의원이 국제축구연맹(FIFA) 차기 회장 출마의사를 밝힌 데 이어 23일 출국했다. 아마도 사전정지작업을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 전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지분 10.15%를 가진 최대주주이다. 현재 고문으로 있지만 사실상 현대중공업의 오너이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임원들을 대규모로 퇴진시킬 때 그의 젊은 아들은 상무로 승진했다.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그의 정치적 측근이 사외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조원대의 적자를 냈다. 올 들어 현대중공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더욱 싸늘해지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들이 현대중공업과 계열사들의 신용등급을 끌어내렸다. 증권사들도 현대중공업과 계열사의 목표주가를 줄줄이 깎아내렸다.

그리스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조선경기가 조속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아직 20조원이 넘는 내부유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큰 규모의 내부유보조차 경영여건이 더 악화되고 실적부진이 계속된다면 순식간에 허공으로 날아갈 수도 있다. 그야말로 현대중공업은 최악의 경영환경에 놓여있다. 정주영 전 회장이 창업할 당시보다 더 어렵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설상가상으로 현대중공업 노조도 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회사측에서는 경영이 어려울 때 파업은 안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당한 호소이다. 지금은 파업을 자제해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동시에 최대주주인 정 전 의원도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국제축구연맹도 중요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어려운 시기에 시급한 일을 미뤄두고 다른 일에 눈을 돌리는 것은 상서롭지 못하다. 과거 대우조선이 어려움을 겪고 노조가 파업을 벌일 때 당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은 거제도 조선소에 상주하면서 노조와 대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애쓴 일이 있다. 정몽준 전 의원이 지금 가야 할 곳은 바로 울산이 아닐까.

열대야에 심해지는 구내염 원인은

건강레이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달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열대야다. 열대야란 밤 사이(전날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때를 말한다. 이처럼 무더운 여름철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힘들다. 잠이 부족하면 신체기능도 저하되고 피로가 쉽게 찾아온다. 또 휴가 전후로 평소보다 무리를 하고 이로 인해 입 병이 더 쉽게 걸릴 수 있다.

흔히 입 병이라고 하는 구내염은 구강과 관련된 부위에 생기는 염증으로 입술, 입안, 혀에 나타나는 모든 염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종류는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궤양, 헤르페스성 구내염, 칸디다증, 편평태선 등이 있다. 구내염은 피로와 스트레스뿐 아니라 비타민 B12와 철분과 엽산의 결핍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음식을 먹을 때 볼을 씹거나, 뜨거운 음식을 급하게 먹을 경우 발생하는 상처 등에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나 발생하기도 한다. 한 번 발생하면 구취, 물집, 궤양 등 증세와 함께 통증이 심하고 음식을 씹거나 삼키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구내염 예방은 필수적이다. 구내염은 면역력이 약해질 때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감염에 따라서 염증이 일어나게 된다. 건강한 성인의 평소 입 속에는 500여 종류 이상의 세균이 살고 있다. 다만 평상시에는 세균 상호 간 견제에 의해 한 종류의 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침도 세균의 번식을 막아 염증이 발생하진 않는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드레날린의 영향으로 침 속 씨알산 분비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입안 세균의 활동력이 높아져 구내염에 걸리기 쉽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운 날씨로 몸이 쉽게 지치고 잠도 설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피로가 쌓여 면역기능이 떨어져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노출되기 쉽고 구내염이 발생하는 것이다.

구내염은 보통 2주 안에 저절로 낫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잘 쉬면 낫는 속도도 빠르다. 다만 증상이 심할 때는 맵고 짜거나 뜨거운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 말할 때 많이 움직이는 위치에 생겼다면 말을 줄이는 것도 통증완화에 도움이 된다. 잦은 접촉으로 자극이 되면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하루에 몇 번씩 입안을 헹구고 양치질을 해 구강을 청결하게 해주면 증상을 완화 시킬수 있다.

/최치선 기자 chisunti@

현대차의 창조경제 성과발표에 대한 단상

기자 수첩

이 정 필
<산업부 기자>



바야흐로 창조경제의 계절이다.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은 혁신적인 창조경제 성과를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삼성에 이은 재계서열 2위인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최근 자사가 이룩한 창조경제의 결과물을 선보였다.

현대차와 광주광역시가 출범시킨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 활동을 소상히 기록한 보도자료는 A4 용지 6장 분량에 달했다.

이 전체 내용은 두 줄로 요약된다.

'광주 전통시장에 점포 2곳을 리모델링했다. 앞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A4 6장을 통틀어 어느 부분이 '창조'이고 '혁신'인지는 찾기 어려웠다.

현대차는 일례일 뿐 여타 대기업들도 상황은 비슷해 보인다.

사실 기업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애초부터 모호한 개념으로 탄생한 창조경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과정인 듯하다.

재계 순위권 내 회사에 다니며 창조경제 사업에 관계한 한 지인은 "위에서 눈치가 보여 안할 수는 없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시행하는데, 내용을 보면 알맹이는 없다. '혁신적인 창조경제'란 자체가 애매하니 기업들 간 엇비슷한 프로세스로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기업들은 연신 창조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고, 여기에서 나온 성과를 잇달아 내놓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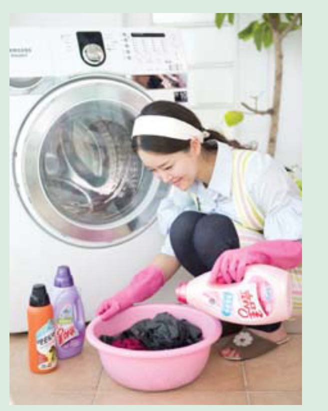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면 전국에 세워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거기에 들어간 인력과 노력, 막대한 시간과 자금은 어떻게 변모하고 활용될지 의문이다.

누눅한 장마철 빨래 어떻게 할까

소비자119

습도가 높아 장마철에는 땀이나 비에 옷이 쉽게 젖어 세탁하는 횟수가 늘어난다.

그러나 높은 습도때문에 옷이 잘 마르지 않아 퀴퀴한 냄새가 배기 쉽고 젖은 빨래를 쌓아두면 옷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 주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실내 건조에 더 효과적인 세제를 사용하면 퀴퀴한 냄새로 다시 세탁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애경 '스파크 고농축 퍼퓸팝'은 3배 농축된 향을 적용한 퍼퓸 컨덴스 기술로 건조시 은은한 잔향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세탁세제다. 여름철 의류에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원인균을 99.9% 제거해 건조시 발생하는 누눅한 냄새 소취에 효과적이다.

또 세심한 세탁이 필요한 고급소재 여름의류는 중성세제로 세탁하는 것이 좋다. 향기가 좋은 중성세제로 관리해주면 별도의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기분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장마철 높은 습도로 인해 세탁조 내에 자리잡은 곰팡이 번식이 활발하기 때문에 세탁 전에 미리 크리너를 이용해 청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빨랫감을 널 때는 긴 옷과 짧은 옷을 번갈아 가며 걸고, 건조대 옆에 선풍기를 틀어 놓거나, 건조대 아래에 신문지를 깔아두면 습기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줘 빨래를 더 빠르게 건조시킬 수 있다.

장마철에는 옷장에 보관된 의류 관리도 필수다. 커피가루·숯 등을 넣어 습기를 제거하거나 옷장용 방향소취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수정 기자 ksj0215@

무죄 확정때 검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 없나

생활법률

지난해 말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여자 동창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근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A(32)씨. 검찰의 과잉수사와 기소권 남용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판단한 A씨는 검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려다 좌절을 맛봤다.

반년 동안 구금생활을 해 직장에서 쫓겨나고 변호사 수임비용으로 적지않은 돈을 쓰는 등 정신적·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했지만 고의과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검찰이 변호사 수임으로 썼던 돈을 보상해줄리 만무했다. 오히려 검찰 측은 "수임비용이 들지 않는 국선변호사를 수임하지 그랬냐"며 A씨에게 면박을 줬다. 누명을 벗기려고 능력 있는 사선 변호사를 수임했는데 이 같은 말을 들으니 A씨는 화가 치밀 수밖에 없었다. A씨는 분하고 억울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 화를 삭힐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경우 A씨와 같이 정신적·금전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현재 이 같은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보기 어렵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검찰의 고의과실을 입증할만한 수사기록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수사기록에 대한 비공개 원칙으로 입증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겨우 검찰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료는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진술한 기록뿐이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국내에서 이 같은 경우로 법원에서 인용된 사례가 없다.

다만 무죄가 확정된 수감자에 한해 구금 일수를 환산,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형사보상제도는 존재한다. 검찰에 형사보상을 신청하면 위원회를 열어 환급을 해줄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보상금의 한도는 수감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적용하고 있다.

불구속기소가 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수감되지 않은 이유로 이 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유선준 기자 rsunjun@


순하디
순하다
순하리
처음
처럼
처음처럼 부드럽게
복숭아처럼 달콤하게
복숭아
우리들의 가벼운 | 순하리 처음처럼 복숭아
14도로 한번 더 순하게 더 깔끔하게, 순하리 처음처럼
알코올 냄새 NO NO, 최적화된 14도 블렌딩으로 찾아낸 RTS 타입의 칵테일
새로운 음주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RTS (Ready To Serve) : 특별한 제조 없이 바로 칵테일의 맛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술
※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